2013-19
기본연구

제주지역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실태와 개선방안

정 영 태

Jeju Development Institute 제주발전연구원

기본연구 2013-19

제주지역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실태와 개선방안

정 영 태

JDI 제주발전연구원
Jeju Development Institute
www.jdi.re.kr

발 간 사

세계는 노동이주, 결혼이민 등 이미 다문화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인구 가운데 결혼이민자만 보더라도 2007년 87,964명에서 2013년 147,591명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혼인으로 인한 귀화자 역시 2007년 38,991명에서 2013년 83,929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제주도는 이주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국내 이주와 함께 해외투자 이주, 유학 등 다양한 이유로 이주자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2013년 발표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는 2,667명으로 전국 281,295명 가운데 0.9%가 제주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7년 9백여명이던 결혼이민자가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전국평균 2배 정도 증가한 비율에 비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다문화사회에서 다문화가족 역시 증가하면서 사회의 또 다른 정책이슈가 자녀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 다문화가족 자녀 전체 인구가 191,328명으로 이 가운데 제주에는 2,35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문화 관련 연구는 주로 결혼과정, 가족생활, 배우자와 가족갈등 등 가족 외연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역 차원에서 2007년, 2010년 각각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이후 연구가 수행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번에 수행된 제주지역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는 지역 차원에서 처음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본 기초연구를 토대로 향후 지역에 맞는 다문화가족과 자녀 지원 정책이 개발되는데 단초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3년 11월

제주발전연구원

원장 공 영 민

연구요약

Ⅰ. 서 론

○ 제주지역의 결혼이민자 인지·귀화자는 2,667명으로 전국 결혼이민자의 1%에 해당되며, 다문화가족 자녀수는 2,358명임

○ 다문화가족 증가에 따라 관련 연구나 접근은 주로 결혼, 이혼, 사별 등 가족 해체·위기·관계를 중심으로 연구와 정책 방향이 제시되었음

○ 최근 자녀 출산과 양육에 따른 이중언어, 중도입국자녀 증가, 자녀의 상급학교 및 대학 진학, 취업, 군 입대 등 사회통합과 관련된 예방적 차원의 정책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다문화가족의 자녀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초 조사를 실시하여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 가운데 자녀 지원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여성들 가운데 3세 이상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한국어와 자녀의 언어발달 정도를 살펴보고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Ⅱ. 다문화가족과 다문화정책

○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은 2013년('13. 7. 5)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는 281,295명이며, 이 가운데 결혼이민자는 147,591명, 혼인귀화자는 83,929명임

○ 제주특별자치도 연도별 외국인 주민 현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13년 1월 1일 12,656명임

○ 결혼이민자는 2013년 2,423명으로 전년대비 12.3%로 급증하였으며 제주시에 거주하는 비중이 68.7%로 나타남

- 결혼이민자의 국적을 보면 동남아 지역이 49.2%로 이 가운데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민자가 전체 결혼이민자의 30.1%로 높게 나타남

○ 읍면동별 거주 현황을 보면 애월읍이 194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도면은 5명으로 가장 적게 거주하고 있음

- 애월읍 194명, 노형동 185명, 연동 143명, 이도2동 134명, 조천읍 126명, 한림읍 104명 등이 100명 이상 거주 지역이며, 서귀포시는 대정읍이 116명으로 7개 지역에 100명 이상의 결혼이민자가 거주하고 있음

○ 외국인주민의 자녀는 만6세 미만이 69.8%로 19세 미만 자녀 10명 가운데 6.9명에 해당됨

○ 제주특별자치도의 다문화가족 관련 인프라는 여성가족부 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민간단체,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기관 등이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지원 관련 법령은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정 2008. 4. 2 조례 제356호, 일부개정 2012. 1. 11 조례 제844호)」,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정 2009. 12. 30 조례 제582호)」,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제정 2011. 11. 2 조례 제807호)」,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 등 4개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총칙 등 5개의 장과 2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이념,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의 수립과 시행,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시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와 민간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다문화자녀 지원 정책으로 대표적인 Rainbow School은 중도입국청소년 대상 한국어 및 특기적성 교육을 실시하여 한국 사회의 초기 적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기초생활 한국어, 특기적성 교육 등 교육프로그램과 한국 생활문화 체험, 학교 편입학 지도 등 크게 3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Rainbow School은 10개 기관으로 레인보우스쿨·여름학교 8개소, 레인보우스쿨 1개소, 주말·야간학교 1개소가 있음

Ⅲ. 제주지역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욕구 조사

○ 본 조사는 제주지역 다문화가족 가운데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비확률표집법으로 유의표집을 함

- 조사 내용은 다문화 가정 구성, 출신국가, 한국어 능력, 경제적 능력, 자녀 양육애로사항, 자녀교육계획, 모국어 교육계획, 사교육비 지출 정도, 가정 내 소통언어 등의 관련 영역 등 25개 문항임
- 설문지 언어는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네팔어 등 4개 언어로 구분 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150명(유효표본)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하였으며, 거주지별로 보면 제주시가 107명으로 응답자의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귀포시는 43명으로 29%에 해당함

- 응답자의 출신국가는 베트남이 47명으로 전체 31%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중국 33명 22%, 일본 23명 1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체 응답자 중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83명(55%)이며, 비경제활동 인구는 67명(45%)으로 나타났음

- 경제활동이 있는 응답자 중 고등학교 졸업자가 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졸이 22명으로 그 다음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고등교육 이수자를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히 나타남
- 그러나 비경제활동 상태로 응답한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자가 25명으로 가장 많아 고등교육 이수 여부와 달리 이주여성의 출산·육아 등 돌봄노동이 경제활동 참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자녀의 모국어 교육계획이 있다는 응답을 한 인원은 총 147명으로 그 이유는 두 나라의 문화나 말을 잘 하게 하고 싶다는 이유가 4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가 부모의 모어를 배우는 것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46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나의 부모, 형제 등과 의사소통을 위해서 교육계획이 있다는 의견은 35명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들 세 가지 이유가

전체 응답자 중 88%를 차지하고 있음

○ 응답자의 출신국가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 적정 희망금액을 조사 분석한 결과 다수의 응답자가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를 적정 비용으로 응답하였음

- 그러나 응답자가 한국교육제도에 대한 인지와 미취학아동이 첫째아인 점을 감안한다면 응답한 사교육비는 국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반면 한국과 비교하여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의 교육인프라를 가진 일본 출신 응답자는 오히려 사교육비 지출이 다른 출신국가 응답자들에 비해 낮게 나타남에 따라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Ⅳ. 결론 및 정책 제언

❍ 제주특별자치도내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2,423명 가운데 150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하였음

- 설문조사 대상 가구는 3세 이상이거나 어린이집 재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음
- 전체 결혼이민자 가운데 6.2%에 해당되는 비율이나, 다문화가족 초기입국자는 자녀 출산 등의 확대가족을 구성하지 못함에 따라 실제 대상자별 응답가구의 비중은 확대될 수 있음

❍ 응답자의 거주지를 보면 제주시 응답자가 71%, 서귀포시 응답자가 29%이며, 출신국가는 베트남 출신 다문화가족 여성이 31%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중국, 일본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 응답자 10명 가운데 4.5명은 본인의 한국어 능력에 대하여 읽기, 쓰기, 통역 등 10개 부문에 대하여 잘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음

❍ 자녀의 언어발달 수준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사교육비 지출 규모를 20만원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음

❍ 지금까지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정책적 지원을 위한 기초 연구를 통해 제주도내 조사 응답자들의 경우 자녀가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들의 비율이

높지 않은 결과 다문화 자녀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특히,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의 경우 출산 이후 자녀의 어린이집 등원을 기점으로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서 조사 대상자와 조사 과정이 상대적으로 한계를 겪음에 따라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의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시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한 욕구 파악이 필요함

○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책에 대한 체감도, 효과성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다문화 지원 정책의 경우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 체계의 개편이 요구됨

○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1) 다문화가족과 자녀를 위한 통합 교육

2) 다문화가족 자녀와 함께 하는 가족교실 운영

3) 초기입국자 중심 프로그램과 차별화 된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4) 제주지역 중도입국 자녀 및 학습부진 다문화자녀를 위한 무지개 교실 운영

5) 다문화가족 사례 관리 확대

6) 다문화가족 정책 패러다임 변화 : 지원에서 사회참여로 전환

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배경 및 목적 ····· 1
2. 연구의 내용 ····· 2
3. 연구 방법 및 절차 ····· 3

Ⅱ. 다문화가족과 다문화정책 ····· 5

1. 다문화가족 실태 ····· 5
2. 다문화가족 지원 제도 ····· 15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과 역할 ····· 20
4.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프로그램 ····· 25

Ⅲ. 제주지역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욕구 조사 ····· 31

1. 조사개요 ····· 31
2. 일반적 특성 ····· 32
3. 경제활동 부문 ····· 34
4. 가구 소득 부문 ····· 52
5. 출신국가 부문 ····· 61

Ⅳ. 결론 및 정책 제언 ····· 71

1. 조사결과 ····· 71
2. 정책제언 ····· 72

참고문헌 ····· 77

Abstract ····· 78

부록1 : 제주지역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실태와 개선방안 설문지(한국어) ····· 80
부록2 : 제주지역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실태와 개선방안 설문지(중국어) ····· 89

표 목 차

<표 1>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 현황 ····· 5
<표 2> 거주외국인 및 결혼이민자 시도 현황 ····· 6
<표 3> 거주외국인 시도별 증가 현황 ····· 7
<표 4> 다문화가족 자녀 연령별 현황 ····· 8
<표 5> 시도별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 ····· 9
<표 6> 외국인과의 혼인 추이 ····· 10
<표 7> 외국인과의 이혼 추이 ····· 10
<표 8>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외국인 주민 현황 ····· 11
<표 9> 제주특별자치도 결혼이민자 국적별 현황 ····· 12
<표 10>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별 결혼이민자 거주 현황 ····· 13
<표 11>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자녀 연령별 현황 ····· 14
<표 1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현황 ····· 20
<표 1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 22
<표 1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언어발달지도사 배치 현황 ····· 23
<표 1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번역 전담인력 배치 현황 ····· 24
<표 1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중언어강사 배치 현황 ····· 25
<표 17> Rainbow School 프로그램 유형 ····· 26
<표 18> 응답자의 최종학력과 경제활동 유무 ····· 35
<표 19> 응답자의 최종학력과 경제활동 유형 ····· 35
<표 20> 배우자의 최종학력과 경제활동 유무 ····· 36
<표 21> 배우자의 최종학력과 경제활동 유형 ····· 37
<표 22> 응답자의 최종학력과 자녀의 모국어 교육 계획 ····· 38
<표 23> 응답자의 자녀에 대한 모국어 교육계획과 이유 ····· 39
<표 24> 한국어 능력에 관한 설문의 세부적 항목 ····· 39
<표 25> 응답자 학력과 한국어능력 1 ····· 40
<표 26> 응답자 학력과 한국어능력 2 ····· 40

<표 27> 응답자 학력과 한국어능력 3 ····· 41
<표 28> 응답자 학력과 한국어능력 4 ····· 41
<표 29> 응답자 학력과 한국어능력 5 ····· 42
<표 30> 응답자 학력과 한국어능력 6 ····· 42
<표 31> 응답자 학력과 한국어능력 7 ····· 43
<표 32> 응답자 학력과 한국어능력 8 ····· 43
<표 33> 응답자 학력과 한국어능력 9 ····· 44
<표 34> 응답자 학력과 한국어능력 10 ····· 44
<표 35> 자녀 언어발달 능력에 관한 설문의 세부적 항목 ····· 45
<표 36> 응답자 학력과 자녀언어발달능력 1 ····· 46
<표 37> 응답자 학력과 자녀언어발달능력 2 ····· 46
<표 38> 응답자 학력과 자녀언어발달능력 3 ····· 47
<표 39> 응답자 학력과 자녀언어발달능력 4 ····· 47
<표 40> 응답자 학력과 자녀언어발달능력 5 ····· 48
<표 41> 응답자 학력과 자녀언어발달능력 6 ····· 48
<표 42> 배우자 학력과 자녀언어발달능력 1 ····· 49
<표 43> 배우자 학력과 자녀언어발달능력 2 ····· 49
<표 44> 배우자 학력과 자녀언어발달능력 3 ····· 50
<표 45> 배우자 학력과 자녀언어발달능력 4 ····· 50
<표 46> 배우자 학력과 자녀언어발달능력 5 ····· 51
<표 47> 배우자 학력과 자녀언어발달능력 6 ····· 51
<표 48> 가구소득과 응답자 근무형태 ····· 53
<표 49> 가구소득과 배우자 근무형태 ····· 54
<표 50> 가구소득과 응답자의 일상 언어 ····· 55
<표 51> 가구소득과 가족과의 한국어 대화 이해 ····· 56
<표 52> 가구소득과 가족간 갈등관계 ····· 57

<표 53> 가구소득과 자녀 교육계획 유무 ····· 58
<표 54> 가구소득과 응답자 모국어 교육계획 ····· 59
<표 55> 가구소득과 자녀의 학교 또는 어린이집 애로사항 ····· 60
<표 56> 응답자의 출신국가와 최종학력 ····· 62
<표 57> 응답자 출신국가와 한국어 대화 이해 정도 ····· 65
<표 58> 출신국가별 교육계획 주 고려 대상 ····· 67
<표 59> 출신국가와 모국어 자녀교육 계획 ····· 68
<표 60> 출신국가와 모국어 교육의 이유 ····· 69

그 림 목 차

<그림 1>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 16
<그림 2> 다문화사회 정책 형성 관점 ····· 18
<그림 3>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 19
<그림 4> 다문화가족 지원체계 ····· 21
<그림 5> 응답자 거주지역 ····· 32
<그림 6> 응답자 출신국가 ····· 32
<그림 7> 응답자 최종학력 ····· 33
<그림 8> 배우자 최종학력 ····· 33
<그림 9> 가계 월 평균소득 ····· 34
<그림 10> 가구소득과 경제활동 참여 여부 ····· 52
<그림 11> 가구소득과 배우자 경제활동 ····· 54
<그림 12> 가구소득과 사교육비 지출 ····· 61
<그림 13> 출신국가별 한국 국적 취득 여부 ····· 63
<그림 14> 출신국가별 경제활동 참여 여부 ····· 63
<그림 15> 가구소득과 응답자의 일상 언어 ····· 64
<그림 16> 출신국가와 자녀의 교육계획 여부 ····· 66
<그림 17> 출신국가별 희망 사교육비 지출 ····· 70
<그림 18> 다문화가족 교육 지원체계 ····· 73

사 진 목 차

<사진 1> 안산글로벌 다문화센터 ····· 27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 다문화가족은 '13년 기준 75만명 내외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년은 100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임

-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으로 2012년 혼인귀화자 이외 기타사유 국적취득자(인지·귀화)도 다문화가족에 포함되면서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 28만명, 배우자 28만명, 자녀 19만명 등임

○ 국적별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는 중국(한국계),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3년 7월 기준 중국(한국계) 100,524명, 중국 67,944명, 베트남 52,323명, 필리핀 15,256명, 일본 12,338명 등 한국계중국인을 포함 중국 출신 결혼이민자가 전체 결혼이민자의 59.9%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베트남 국적이 18.6%, 필리핀 5.4% 순으로 나타남

○ 제주지역의 결혼이민자 인지·귀화자는 2,667명으로 전국 결혼이민자의 1%에 해당되며, 다문화가족 자녀수는 2,358명임

- 제주도의 결혼이민자는 2007년 964명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자녀수는 2007년 394명에서 2,358명으로 대폭 증가함

○ 다문화가족 증가에 따라 관련 연구나 접근은 주로 결혼, 이혼, 사별 등 가족 해체·위기·관계를 중심으로 연구나 정책 방향이 제시되었음

- 상업적 국제결혼에 대한 초기 문제 제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다양한 요인에 의한 이혼 분석, 여성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 간 연령격차로 인한 사별 비중 증가, 사별·가족해체 등에 따른 여성결혼이민자와 자녀의 경제적 자립 문제, 이혼에 따른 한국인 배우자 가족과의 관계 등 새로운 가족 문제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음

○ 최근 자녀 출산과 양육에 따른 이중언어, 중도입국자녀 증가, 자녀의 상급학교 및 대학 진학, 취업, 군 입대 등 사회통합과 관련된 예방적 차원의 정책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

○ 2011년 말 다문화 자녀는 151,154명에서 2012년 168,583명으로 전년 대비 11.5%가 증가하였으나,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6세 미만의 자녀가 전체 자녀의 62.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반면 16~18세는 5.1%로 나타나고 있음

○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은 관련 법령과 소관부처의 변경, 다문화가족의 범위 변화, 2010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지원 정책 마련, 서비스 기관 확대 등 정책적으로 두드러진 접근을 들 수 있음

-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 확대, 서비스 기관 확대, 대상 확대 등으로 다문화가족 정책을 둘러싼 외연이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다문화가족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에 그치고 있으며, 다양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 이에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다문화가족의 자녀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초 조사를 실시하여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 가운데 자녀 지원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연구의 내용

○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여성들 가운데 3세 이상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한국어와 자녀의 언어발달 정도를 살펴보고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 우선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의 실태를 분석하고자 함

-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의 방향을 우선 살펴보고, 제주에 맞는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정책을 모색하고자 함

○ 둘째,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 정도, 자녀 양육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부진과 탈학교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자 함

-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현재 전국적으로 10명 가운데 6.2명이 6세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현행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은 주로 초기 사회적응, 자녀양육지원,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등 결혼이민자 입국 초기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원 정책 발굴이 향후 지역 사회 인적자원 육성에 있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음

○ 셋째, 다문화가족 자녀가 영유아기, 학령기, 청소년기 등 생애주기에 따라 적절한 양육과 교육이 사회통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을 발굴하는데 있음

-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외국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낮은 사회성, 부족한 발달 상태 등으로 학업부진, 또래와의 관계 형성 어려움, 정서적 불안정 등이 있으므로 생애주기를 고려한 제주지역에 적합한 자녀 지원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의 실태 조사를 통해 제주지역의 다문화 연구 자료로 향후 다문화기본 정책을 수립하는데 분야별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3. 연구 방법 및 절차

1) 문헌 연구

- 다문화가족 실태

- 다문화가족 지원 제도

- 다문화가족 관련 법령

2) 실태 조사

- 3세 이상의 자녀를 둔 제주지역 다문화가족
- 인구통계(거주 지역, 연령, 학력, 소득), 결혼시기, 국적취득 여부, 장애 여부, 자녀 돌봄 유형 등 17개 항목
- 경제활동(취업 여부, 근무형태) 등 8개 항목
- 언어수준(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 교육 이수 여부, 소통 정도) 등 20개 항목
- 부모와 자녀의 교육 정도(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 자녀 교육 여부, 이중언어)와 자녀의 언어발달 수준 정도 등 26개 항목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실태와 개선방안>

Ⅱ. 다문화가족과 다문화정책

1. 다문화가족 실태

1) 다문화가족 현황

○ 2013년('13.7.5)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는 281,295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결혼이민자는 147,591명, 혼인귀화자는 83,929명임

<표 1>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 현황

(단위: 명)

연도	계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기타사유 국적취득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007	142,015	21,905	120,110	87,964	12,497	75,467	38,991	2,624	36,367	15,060	6,784	8,276
2008	168,224	26,339	141,885	102,713	13,711	89,002	41,672	2,991	38,681	23,839	9,637	14,202
2009	199,398	30,988	168,410	125,673	15,190	110,483	41,417	2,047	39,370	32,308	13,751	18,557
2010	221,548	34,144	187,404	125,087	15,876	109,211	56,584	3,796	52,788	39,877	14,472	25,405
2011	252,764	22,878	188,580	141,654	18,561	123,093	69,804	4,317	65,487	41,306	16,947	24,359
2012	267,727	42,459	225,268	144,214	19,630	124,584	76,473	4,268	72,205	47,040	18,561	28,479
2013	281,295	45,348	235,947	147,591	20,887	126,704	83,929	4,264	79,665	49,775	20,197	29,578

출처: 안전행정부, 외국인주민현황조사(2013)

○ 지역별로 살펴보면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의 비중은 경기도가 64,404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주는 2,423명, 세종특별자치시는 605명임

- 경기,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836,375명으로 전체 외국인의 57.9%를 차지하고, 도 단위에서 경기도를 제외할 경우 경남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결혼이민자의 지역별 비중은 인구대비 비율로 보면 충남이 0.56%로 가장 높음

<표 2> 거주외국인 및 결혼이민자 시도 현황

(단위: 명, %)

구 분	주민등록 인구('13.1.1)	거주외국인	인구대비 비율(%)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	인구대비 비율(%)
합 계	50,948,272	1,445,631	2.8%	231,520	0.45%
서 울	10,195,318	395,640	3.9%	49,251	0.48%
부 산	3,538,484	51,617	1.5%	10,201	0.29%
대 구	2,505,644	32,522	1.3%	6,710	0.27%
인 천	2,843,981	75,552	2.7%	13,779	0.48%
광 주	1,469,216	22,291	1.5%	4,713	0.32%
대 전	1,524,583	22,907	1.5%	4,909	0.31%
울 산	1,147,256	28,045	2.4%	4,516	0.39%
세종특별 자치시	113,117	3,668	3.2%	605	0.53%
경 기	12,093,299	440,735	3.6%	64,404	0.53%
강 원	1,538,630	23,738	1.5%	6,082	0.40%
충 북	1,565,628	39,177	2.5%	7,259	0.46%
충 남	2,028,777	68,639	3.4%	11,368	0.56%
전 북	1,873,341	37,788	2.0%	9,152	0.49%
전 남	1,909,618	41,340	2.2%	10,297	0.54%
경 북	2,698,353	59,330	2.2%	11,366	0.42%
경 남	3,319,314	89,986	2.7%	14,485	0.44%
제 주	583,713	12,656	2.2%	2,423	0.42%

출처 : 안전행정부, 외국인주민현황조사(2013)

○ 거주외국인의 시도별 증가를 보면 전년대비 2.6%가 증가하였으며,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는 전년대비 4.9%가 증가하였음

- 결혼이민자는 전국 평균 4.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주는 전년대비 12.3%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인 반면 서울은 1.3%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3> 거주외국인 시도별 증가 현황

(단위: 명, %)

구 분	거주외국인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		
	2012	2013	증가율(%)	2012	2013	증가율(%)
합 계	1,409,577	1,445,631	2.6%	220,687	231,520	4.9%
서 울	406,293	395,640	△2.6%	48,597	49,251	1.3%
부 산	49,329	51,617	4.6%	9,663	10,201	5.6%
대 구	31,231	32,522	4.1%	6,265	6,710	7.1%
인 천	73,588	75,552	2.7%	13,052	13,779	5.6%
광 주	20,649	22,291	8.0%	4,376	4,713	7.7%
대 전	22,499	22,907	1.8%	4,757	4,909	3.2%
울 산	25,163	28,045	11.5%	4,134	4,516	9.1%
세종특별자치시	-	3,668	-	-	605	-
경 기	424,946	440,735	3.7%	61,280	64,404	5.1%
강 원	22,731	23,738	4.4%	5,827	6,082	4.4%
충 북	37,653	39,177	4.0%	6,797	7,259	6.8%
충 남	67,157	68,639	2.2%	11,089	11,368	2.5%
전 북	35,281	37,788	7.1%	8,648	9,152	5.8%
전 남	39,006	41,340	6.0%	9,768	10,297	5.4%
경 북	56,250	59,330	5.5%	10,639	11,366	6.8%
경 남	87,395	89,986	3.0%	13,637	14,485	6.2%
제 주	10,406	12,656	21.6%	2,158	2,423	12.3%

출처 : 안전행정부, 외국인주민현황조사(2013)

○ 국적별 다문화가족 자녀는 2013년 191,328명으로 만 6세 이하 자녀는 116,696명으로 전체 자녀 가운데 61%를 차지하고 있으나, 만 15세 이상은 5.7%로 상대적으로 결혼이민자 자녀의 연령대가 저연령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4> 다문화가족 자녀 연령별 현황

(단위: 명)

연도	연령별 현황				
	계	만6세이하	만7~12세	만13~15세	만16~18세
2007	44,258	26,445	14,392	2,080	1,341
2008	58,007	33,140	18,691	3,672	2,504
2009	107,689	64,040	28,922	8,082	6,645
2010	121,935	75,776	30,587	8,688	6,884
2011	151,154	93,537	37,590	12,392	7,635
2012	168,583	104,694	40,235	15,038	8,616
2013	191,328	116,696	45,156	18,395	11,081

출처 : 안전행정부, 외국인주민현황조사(2013)

○ 시도별 다문화가족 자녀수는 경기도가 48,138명으로 가장 비중이 높고, 서울, 경남, 전남, 경북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다문화가족 자녀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07년 44,258명에서 2013년 191,328명으로 4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인 지역은 경기, 제주, 서울 등으로 나타났음

<표 5> 시도별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

(단위: 명)

시도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44,258	58,007	107,689	121,935	151,154	168,583	191,328
서울	5,305	7,500	16,772	19,014	24,084	26,008	29,285
부산	2,269	3,057	5,091	5,698	6,837	7,375	8,311
대구	2,019	2,254	3,656	3,904	4,475	5,125	5,829
인천	2,313	3,054	6,662	7,805	8,868	9,552	11,082
광주	1,231	1,608	2,420	2,752	3,403	3,926	4,519
대전	824	985	2,441	2,881	3,439	3,847	4,365
울산	884	1,068	2,489	2,798	3,233	3,582	4,092
세종	-	-	-	-	-	-	563
경기	6,617	11,131	25,648	29,953	37,519	42,365	48,138
강원	2,366	2,590	4,017	3,900	5,161	5,780	6,498
충북	2,288	2,584	3,748	4,710	5,675	6,445	7,272
충남	3,432	3,421	6,399	6,953	9,119	10,023	11,010
전북	3,275	4,283	5,474	5,849	7,755	8,766	9,989
전남	4,153	4,902	7,279	7,453	9,764	10,763	12,149
경북	3,289	4,235	6,353	7,715	9,246	10,251	11,574
경남	3,599	4,601	8,060	9,260	10,996	12,762	14,294
제주	394	734	1,180	1,290	1,580	2,013	2,358

출처 : 안전행정부, 외국인주민현황조사(2013)

○ 반면 외국인과의 혼인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으로 2007년 37,560건수를 정점으로 하여 2012년 28,236건으로 감소하였음

- 총 혼인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10.7%를 차지하여 10쌍 가운데 외국인과의 혼인이 1쌍으로 나타났으나, 2012년 8.7%까지 낮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외국인과의 결혼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임

<표 6> 외국인과의 혼인 추이

(단위: 명,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 혼인건수	343,559	327,715	309,759	326,104	329,087	327,073
외국인과의 혼인	37,560	36,204	33,300	34,235	29,762	28,326
(총 혼인 중 비중)	(10.9)	(11.0)	(10.8)	(10.5)	(9.0)	(8.7)
▫ 한국남성+외국여성	28,580	28,163	25,142	26,274	22,265	20,638
▫ 한국여성+외국남성	8,980	8,041	8,158	7,961	7,497	7,688

출처 : 통계청, 혼인·이혼통계. 각년도

○ 외국인과의 이혼은 오히려 2011년도까지 증가 추세에서 2012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총 이혼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6.7%에서 2012년 9.5%까지 증가하였음

<표 7> 외국인과의 이혼 추이

(단위: 명,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 이혼건수	124,072	116,535	123,999	116,858	114,284	114,316
외국인과의 이혼	8,294	10,980	11,473	11,088	11,495	10,887
(총 이혼 중 비중)	(6.7)	(9.4)	(9.3)	(9.5)	(10.1)	(9.5)
▫ 한국남성+외국여성	5,609	7,901	8,246	7,852	8,349	7,878
▫ 한국여성+외국남성	2,685	3,079	3,227	3,236	3,146	3,009

출처 : 통계청, 혼인·이혼통계. 각년도

2)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연도별 외국인 주민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13년 1월 1일 현재 12,656명임

- 여자외국인은 46.3%로 나타났으며, 거주 외국인의 67.3%가 제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8>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외국인 주민 현황

(단위: 명, %)

구 분	도			제주시			서귀포시			전년대비 증가수 (증가율%)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007년	4,015	2,156	1,859	2,694	1,392	1,302	1,321	764	557	1,370 (51.8%)
2008년	5,052	2,719	2,333	3,372	1,702	1,670	1,680	1,017	663	1,037 (25.8%)
2009년	6,944	3,675	3,269	4,887	2,499	2,388	2,057	1,176	881	1,892 (37.5%)
2010년	7,343	3,781	3,562	5,195	2,606	2,589	2,148	1,175	973	399 (5.7%)
2011년	8,499	4,371	4,128	5,925	2,934	2,991	2,574	1,437	1,137	1,156 (15.7%)
2012년	10,406	5,533	4,873	7,119	3,615	3,504	3,287	1,918	1,369	1,907 (22.4%)
2013년	12,656	6,798	5,858	8,518	4,326	4,192	4,138	2,472	1,666	2,250 (21.6%)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현황(2013)

○ 결혼이민자는 2013년 2,423명으로 전년대비 12.3%로 급증하였으며, 제주시에 68.7%가 거주하고 있음

- 결혼이민자의 국적을 보면 동남아 지역이 49.2%로 이 가운데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민자가 전체 결혼이민자의 30.1%로 높게 나타남

<표 9> 제주특별자치도 결혼이민자 국적별 현황(2013.1.1 기준)

(단위: 명, %)

구 분		합 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고(비율)
합 계		2,423	1,665	758	100%
동북아	소 계	979	711	268	
	중 국	433	320	113	17.9%
	중국(한국계)	348	234	114	14.3%
	대 만	28	25	3	1.2%
	일 본	152	123	29	6.3%
	몽 골	18	9	9	0.7%
동남아	소 계	1,193	747	446	
	베 트 남	746	481	265	30.8%
	필 리 핀	356	204	152	14.7%
	태 국	14	9	5	0.6%
	인도네시아	4	3	1	0.2%
	캄 보 디 아	65	45	20	2.7%
	말레이시아	2	1	1	0.1%
	기 타	6	4	2	0.2%
남부아시아		100	86	14	4.1%
중앙아시아		35	26	9	1.4%
미 국		43	35	8	1.8%
러 시 아		15	13	2	0.6%
기 타		58	47	11	2.4%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현황(2013)

○ 읍면동별 거주 현황을 보면 애월읍이 194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도면은 5명으로 가장 적게 거주하고 있음

- 애월읍 194명, 노형동 185명, 연동 143명, 이도2동 134명, 조천읍 126명, 한림읍 104명 등이 100명 이상 거주 지역이며, 서귀포시는 대정읍이 116명으로 7개 지역에 100명 이상 결혼이민자가 거주하고 있음

<표 10>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별 결혼이민자 거주현황(2013.1.1 기준)

(단위: 명, %)

구 분	결혼이민자 등			구 분	결혼이민자 등		
	계	혼인 귀화자	결혼 이민자		계	혼인 귀화자	결혼 이민자
총 계	2,423	1,803	620				
제주시	1,665	1,245	420	서귀포시	758	558	200
한림읍	**104**	80	24	대정읍	**116**	98	18
애월읍	**194**	137	57	남원읍	86	64	22
구좌읍	90	73	17	성산읍	67	57	10
조천읍	**126**	84	42	안덕면	62	52	10
한경면	47	33	14	표선면	68	40	28
추자면	19	19	0	송산동	31	24	7
우도면	5	2	3	정방동	11	10	1
일도1동	20	15	5	중앙동	24	10	14
일도2동	73	65	8	천지동	9	4	5
이도1동	25	20	5	효돈동	14	11	3
이도2동	**134**	97	37	영천동	27	17	10
삼도1동	37	29	8	동홍동	66	43	23
삼도2동	26	19	7	서홍동	25	18	7
용담1동	23	19	4	대륜동	47	30	17
용담2동	56	42	14	대천동	35	25	10
건입동	49	37	12	중문동	46	36	10
화북동	82	54	28	예래동	24	19	5
삼양동	53	44	9				
봉개동	18	14	4				
아라동	45	39	6				
오라동	26	20	6				
연 동	**143**	97	46				
노형동	**185**	133	52				
외도동	46	42	4				
이호동	28	22	6				
도두동	11	9	2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현황(2013)

○ 외국인주민의 자녀는 만 6세 미만이 69.8%로 19세 미만 자녀 10명 가운데 6.9명에 해당됨

<표 11>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자녀 연령별 현황(2013.1.1 기준)

(단위: 명)

구분	소계	만6세이하	만7~12세	만13~15세	만16~18세
2011년* (1.1기준)	1,580	1,092	319	169**	
2012년 (1.1기준)	2,013	1,396	378	137	102
2013년 (1.1기준)	2,358	1,647	440	166	105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현황(2013)
* : 2009년부터 다문화자녀 통계는 결혼이민자 배우자 정보를 활용하여 조사됨
** : 2009년 연령별 통계는 별도로 생산되지 않고 통합하여 13~18세를 통합함

3)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 관련 인프라

○ 제주특별자치도의 다문화가족 관련 인프라는 여성가족부 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민간단체,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기관 등이 있음

- 여성가족부 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각각 1개소, 국제가정문화원, 제주다문화가정센터, 제주서부다문화가족센터 등 민간 NGO 3개소, 다문화프로그램 운영 종합사회복지관 9개소,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8개소 등이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2013년 다문화가족지원 예산은 1,532,355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2.1%가 증가하였음

- 특히 지방비의 경우 2012년 630,752천원에서 2013년 816,832천원으로

전년 대비 29.5%가 증가함에 따라 제주지역 차원의 자체사업 비중이 전년에 비하여 1.4배가 증가하였으며, 그 원인으로는 지역 맞춤형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들 수 있음

- 2013년 특색있는 프로그램으로 베트남, 중국어 등 결혼이민자 모국어 보급, 다문화가정 고향방문, 다문화가정 체육대회·글짓기, 취·창업 프로그램 확대, 1366 이주여성상담통역 등 제주도 단위사업과 제주시 9개 사업, 서귀포시 4개 사업 등 전반적으로 관련 사업이 확대되었음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지원 관련 법령은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정 2008. 4. 2 조례 제356호, 일부개정 2012. 1. 11 조례 제844호)」,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정 2009. 12. 30 조례 제582호)」,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제정 2011. 11. 2 조례 제807호)」,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등 4개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총칙 등 5개의 장과 2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이념,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의 수립과 시행,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시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와 민간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2. 다문화가족 지원제도[1)]

1)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 정책

○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의2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매 5년마다 다문화가족 지원 기본계획을 법정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음

1) 다문화가족 지원제도는 현행 추진되고 있는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였음을 미리 밝혀둠

- 다문화가족 기본계획은 결혼이민자 등이 한국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생활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여 관계부처 합동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은 열린 다문화사회로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을 비전으로 하여 5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음

-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10~12)은 입국 전 현지 사전교육, 국제결혼 중개업 관리, 입국 후 한국어 교육, 통·번역 지원, 보육료 지원, 언어발달 교육, 자녀생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추진되었음

<그림1>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출처: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여성가족부·관계부처 합동

○ 그러나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음

- 우선, 가족내 불평등한 관계 조성, 결혼이민자의 자존감 저하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결혼이민자의 낮은 자존감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정체성 확립 및 언어능력 발달 저하 유발 등으로 기존 문제를 해소하는데 제약이 있음
- 두 번째는 취학자녀 지원책 미흡으로 이는 자녀가 학령기에 들어가면서 학습부진, 학교부적응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결혼이민자 가족 대부분이 결혼이민자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호소하기에 이르렀고,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자녀 역시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정책적인 요구가 제기되었음
- 세 번째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 부족, 가족갈등, 폭력피해 및 경제적인 문제 등의 어려움으로 여전히 가족해체가 감소하지 않고 있으나, 예방정책과 해체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임
- 네 번째는 결혼이민자의 초기 적응지원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결혼이민자의 역량강화와 취업지원 요구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음
- 다섯 번째는 2012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에서 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에서 대학교육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서유럽 91.3%, 미국 84.3%, 일본 61.5%, 몽골 56.7%, 필리핀 46.3%, 태국 33.3% 등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 고용, 법률, 의료 등 해당 전문자격증 소지자 등의 인력활용방안이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었음
- 여섯 번째는 전반적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한 반면 여전히 역차별 논란, 외국인혐오증(제노포비아) 등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낮아지지 않고, 다양한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인식개선 등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음
-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정책이 총괄되고 있으나, 부처간 업무 중복 및 일회성 사업에 대한 문제, 중앙-지방·정부-민간간 역할 분담과 실질적 권한·역할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협의될 필요가 있음

2)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 정책

○ 제2차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2013~2017)은 국제결혼의 증가로 다문화가족이 2020년 100만 명이 예상되면서 인구·가족·사회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다문화사회로 진전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임

- 앞서 수립된 1차 기본계획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 추진되면서 5대 영역 61개 세부과제를 11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추진한 반면, 2차 기본계획은 계획기간을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과제 영역 역시 6대 영역 86개 과제로 13개 중앙행정기관·법원·지방자치단체까지 포괄하면서 결과적으로 추진기관과 과제가 모두 확대되었음

<그림 2> 다문화사회 정책 형성 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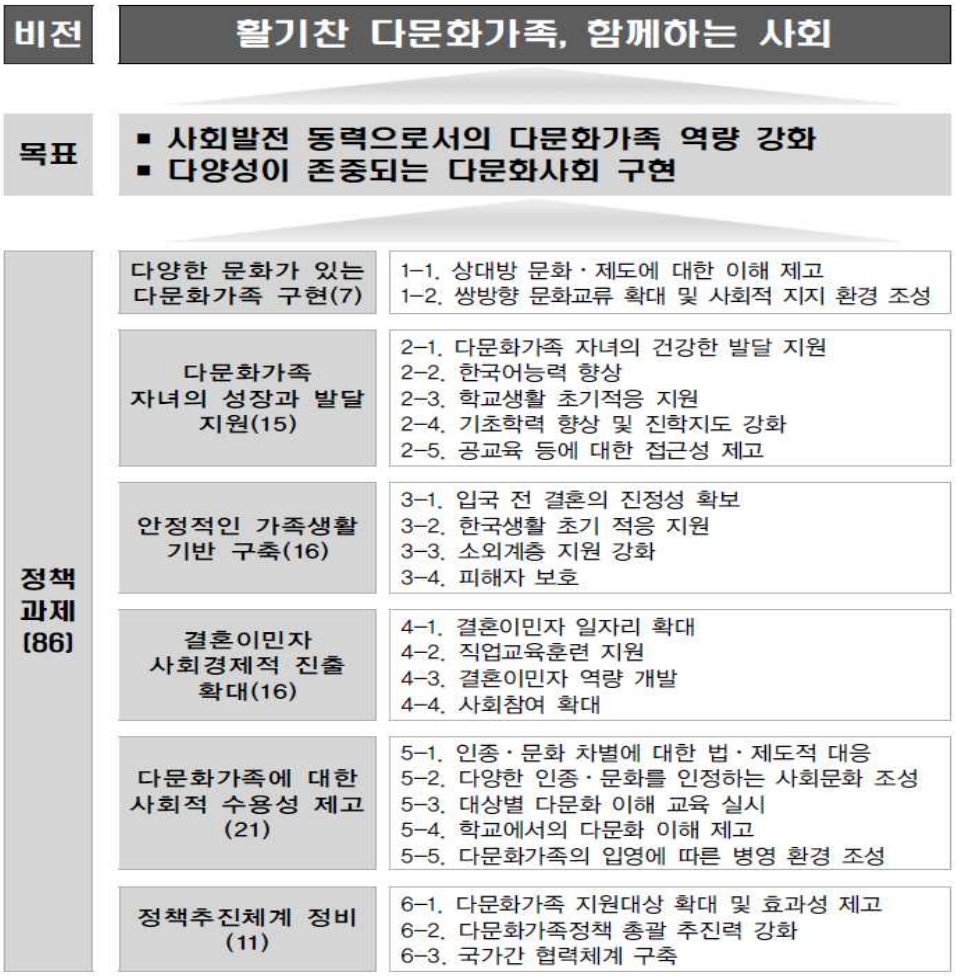
구분	태동기	→	발달기
인구	국제결혼 증가 다문화가족 증가		국제결혼 비율 안정화 다문화가족 지속 증가
가족	결혼이민자의 초기 적응 자녀 출생, 초기 발달 진행 결혼 및 가족생활 갈등 발생		결혼이민자의 사회 진출 확대 자녀세대 성장 가족 해체 증대 가능
사회	사회적 관심 형성		

출처 :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 여성가족부·관계부처 합동

○ 특히 2차 기본계획은 결혼이민자를 대하는 수용태세를 한국문화 적응 중심의 시혜적인 관점에서 취약계층과 동일시하거나 부정적 시각의 고착화를 개선하고, 다문화가족을 사회발전의 동력으로써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가족문화와 사회분위기 조성의 관점에서 출발하였음

○ 2차 다문화가족정책의 기본계획은 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사회발전의 동력으로서의 다문화가족 역량강화,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을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그림3>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출처 :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 여성가족부·관계부처 합동

○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가운데 자녀 지원과 관련된 정책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을 중심으로 5개 범주 15개 과제를 제시함

-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발달지원을 위하여 건강검진, 언어발달 지원, 이중언어 교육 확대, 한국어 교육을 위한 인터넷 공유, 다문화 배경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 초등학교 입학전 프로그램

개발 보급, 예비학교 전국 확대 운영, 자녀생활서비스 확대, 취업 및 진학을 지원하는 초기적응 프로그램 'Rainbow School[2]' 운영, 기초학력 향상 및 진학지도 강화, 공교육 등에 대한 접근성 제고 등임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과 역할

○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방안』 마련을 계기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시·군·구별로 지정되었음

- 2006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로 21개소를 시작으로, 2013년 현재 전국에 207개소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16개의 거점센터가 지정 운영되고 있음

<표 1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현황

(단위:개소수)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소계	207	23	8	7	9	4	4	4	1	29	14	12	15	14	20	23	19	2
가형	57	12	2	2	4	2	-	1	-	13	2	1	4	4	-	3	5	1
나형	143	11	6	5	4	2	4	3	1	16	12	10	10	10	20	16	12	1
지방비	7				1							1				3	2	
거점센터	16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주1) 가형과 나형 구분 기준 : 국비 기준[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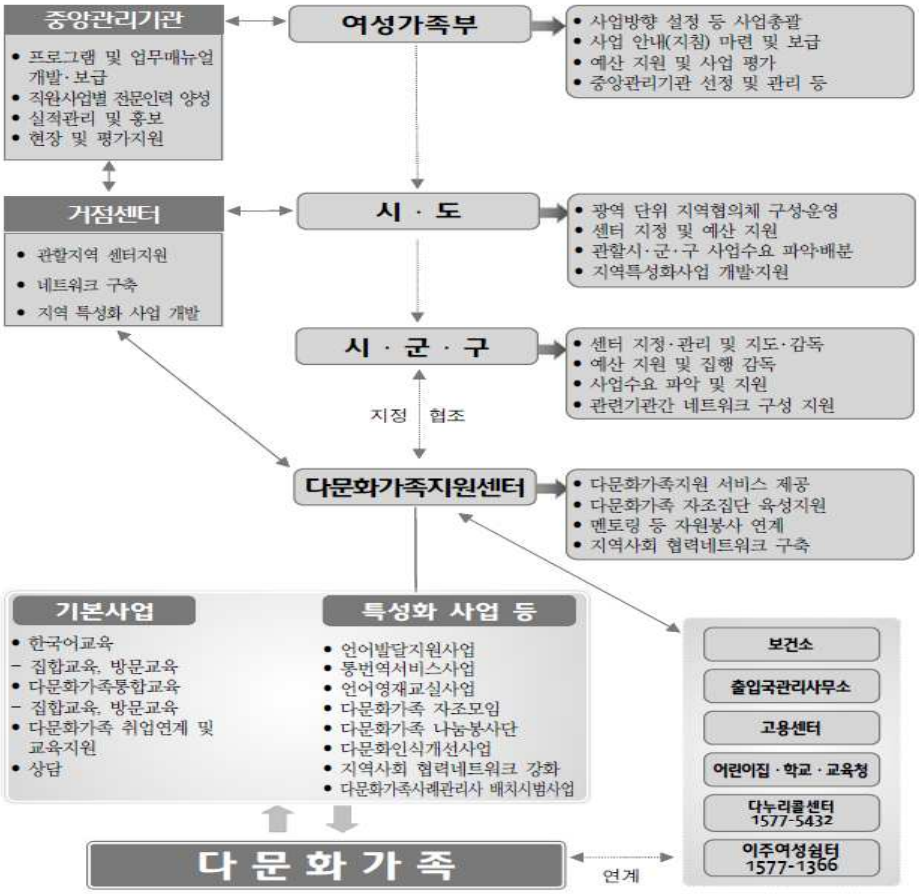
2) Rainbow School은 외국출신의 중도입국 청소년(9세~24세)을 대상으로 전일제(주5일. 4개월), 방과후, 여름과정, 주말과정 등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한국어, 한국생활문화, 정체성, 편입학 및 진로지도, 취업연계 등을 지원함

3) 가형의 국비 지원 금액은 169,860천원, 나형 국비 지원 금액은 140,730천원으로 센터 기본운영비에 대항되며 국비의 경우 지방비 70% 지원을 의미함(단, 서울 50%)

- 결혼이민자 아동양육지원 방문교육, 한국어 교육 및 아동양육 방문교육 통합, 언어영재교실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업무 추진체계가 연동되면서, 보건소,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용센터, 어린이집·학교·교육청, 다누리콜센터, 이주여성쉼터까지 연계하여 다문화가족을 지원함

<그림 4> 다문화가족 지원체계



출처 : 2013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 다문화가족센터 사업내용은 크게 교육사업, 상담사업, 문화사업, 홍보 및 정보제공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교육사업은 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통합교육,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으로 되어 있음
- 상담사업은 개인상담, 집단상담, 사례관리, 심리검사, 외부상담기관 연계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문화사업은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다문화가족 자조모임으로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이 함께 할 수 있음
- 홍보 및 정보제공 사업은 다문화 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홍보,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음
- 이들 사업은 기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유사하며, 특화사업으로 교육사업을 꼽을 수 있음

<표 1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구분 / 영역		공통필수	선택(예시)	비고
교육사업	한국어 교육	- 1단계, 2단계 -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400시간 (방문별도)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 가족 의사소통, 가족관계 향상 - 부부·배우자교육 - 아버지교육 - 다문화 이해 및 인식교육 - 법률과 인권교육 - 방문 부모교육·자녀생활서비스	결혼과 가족의 이해 가족의 의미와 역할 배우자 이해 예비·배우자교육 부모-자녀 관계 부모역할 등	60시간 (방문별도)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 취업 기초소양교육 - 워크넷 등록 및 연계		워크넷 3건 이상
상담사업	상담	- 가족상담		연간 80회기 이상 (가족상담 30회기 이상 필수)
문화사업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 나눔봉사단 구성 및 운영 - 봉사자 소양교육		소양교육 6시간 이상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결혼이민자/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등	

출처 : 2013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 그 밖에 다문화가족센터는 특성화사업으로 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 언어영재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우선 언어발달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통해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은 물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을 대상으로 적절한 언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원만한 발달을 가져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 아울러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교육과 함께 다문화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일상에서 아동의 언어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 2012년부터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교실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2013년 현재 전국적으로 언어발달지도사는 300명이 배치되어 있음

<표 1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언어발달지도사 배치 현황

(단위:명)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인원	300	39	15	10	14	10	10	10	1	39	19	14	19	23	23	23	26	5
5일제	250	32	13	8	11	8	9	8	1	32	16	11	17	20	20	19	23	2
4.3일제	50	7	2	2	3	2	1	2	0	7	3	3	2	3	3	4	3	3

출처 : 2013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 언어발달사업 진행은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언어발달교실이나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 외부 기관

에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음

- 대상자별로 6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진전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회까지(최대 총 24개월) 연장이 가능함

○ 다음으로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은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번역서비스 전담인력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임

-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영어, 따갈로그어), 몽골어, 태국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인도네시아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네팔어 등 12개 언어 통번역서비스 전담인력을 통해 지원함

- 가족생활 및 국가 간 문화 차이 등 입국 초기 상담,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국적·체류 관련 정보 제공 및 사업안내, 임신·출산·양육 등 생활정보 안내 및 상담, 교육과정 통역 지원, 전화 및 이메일 통번역 업무처리 등 센터 내 업무 수행과 외부 파견으로 가족간 의사소통 통역, 행정·사법기관 이용시 통번역, 병원, 보건소, 경찰서, 학교 등 공공기관 이용시 통번역, 위기상황시 통번역 등 직간접적으로 통번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표 1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번역 전담인력 배치 현황

(단위:명)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인원	282	32	8	10	11	10	7	5	2	39	25	16	20	24	22	26	20	5

출처 : 2013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 마지막으로 엄마(아빠)나라 언어습득 지원을 위한 언어영재교실 사업이 있으며,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 수업을 통해 다문화감수성을 지닌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요 출신국의 언어 및 문화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자녀의 경우 전년도 참여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비다문화가족 자녀의 경우 저소득계층을 우선으로 하나 대기자가 없을 경우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
- 특히, 언어영재교실은 2월부터 11월까지 2학제로 운영하면서 영어를 제외한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러시아어, 몽골어, 필리핀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등 센터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무엇보다 미취학 아동,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통합반, 결혼이민자의 배우자와 시부모 등이 참여할 수 있는 통합반 등 다양한 반을 편성하여 참여자의 눈높이에 맞게 교육 수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표 1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중언어강사[4] 배치 현황

(단위:명)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배치 강사	158	22	8	7	9	4	5	4	-	23	7	9	11	13	12	10	10	4

4.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프로그램(Rainbow School)

○ Rainbow School은 중도입국청소년 대상 한국어 및 특기적성 교육을 실시하여 한국 사회의 초기 적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 우선, 중도입국청소년은 한국인과 재혼한 부모를 따라서 한국에 온 청소년,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온 청소년, 외국인 부모와 함께 한국에 온 청소년을 의미함

4) 현재 제시된 이중언어강사는 전일제를 기준으로 현황을 제시하고 있음

- 교육부[5]는 중도입국청소년을 국제결혼 가정 자녀로 한정하고 있음

○ 중도입국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은 국제결혼 자녀가 외국 등에서 성장한 경우와 더불어 재혼한 결혼이민자와 동반입국한 자녀까지 중도입국 자녀로 보고 한국으로 이주하여 한국어 및 지역사회정착 서비스가 필요한 9세에서 24세 중도입국청소년을 대상으로 입국 초기 지원, 진로 지원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임

-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기초생활 한국어, 특기적성 교육 등 교육프로그램과 한국 생활문화 체험, 학교 편입학 지도 등으로 크게 3개 유형으로 구분됨

<표 17> Rainbow School 프로그램 유형

명 칭	기 간	형 식
Rainbow School	2013년 3월 ~ 12월, 4개월 과정(연 2회),	전일제(주5일제)
Rainbow 주말·야간학교	2013년 3월 ~ 12월, 4개월 과정(연 2회)	주중(야간) 및 주말
Rainbow 여름학교	2013년 7월 ~ 8월, 3주 과정	전일제(주5일제)

출처 : 무지개청소년센터

○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Rainbow School은 10개 기관으로 레인보우스쿨·여름학교 8개소, 레인보우스쿨 1개소, 주말·야간학교 1개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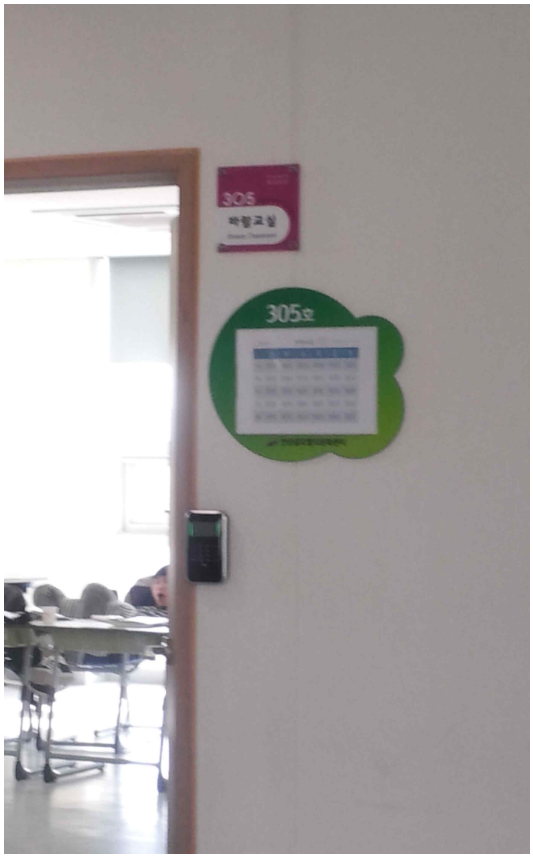
5) 교육부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음

국제결혼가정 자녀	국내출생자녀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이하 '결혼이민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중도입국자녀	국제결혼가정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청소년기에 입국한 자녀
외국인가정자녀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서울 종로구, 금천구, 인천 남동구, 경기 수원시, 부천시, 안산시, 부산(이상 레인보우스쿨·여름학교), 전북 익산시(레인보우스쿨), 서울 구로구(주말·야간학교) 등임

<사진 1> 안산글로벌 다문화센터

<안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레인보우스쿨 교실>

- 안산시의 경우 Rainbow School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사례관리 중심의 운영에서 성공요인을 찾을 수 있음

– 안산시 사례 –

○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중국 국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몽골, 필리핀, 베트남, 난민 등 다양한 국적의 다양한 상황에 처한 외국인이 있음

– 안산시 인구는 2013년 10월말 기준 762,519명으로 이 가운데 한국인이 714,025명이며, 외국인이 6.4%인 48,494명임

– 거주외국인을 지역별로 보면 상록구에 16.5%인 7,987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단원구는 83.5%인 40,507명이 거주하고 있음

–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 남자는 28,042명이며, 여자는 20,452명으로 남자외국인이 전체 외국인의 57.8%를 차지하고 있음

– 안산시는 원곡동을 중심으로 다문화거리가 조성되어 있으며, 거주외국인을 위한 외국인 전담 지원기관인 외국인주민센터를 2008년 설치 운영하고 있음

– 안산시는 다문화가정과 외국인주민을 위하여 다문화마을 특구 지정, 거주외국인지원 조례 제정, 이주민통역지원, 거주외국인 지원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다문화 헌장 제정, 다문화 작은 도서관 개관, 다문화아동전담 부서 설치,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글로벌아동센터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음

○ 안산시는 삼성전자, 사)We Start운동본부와 함께 글로벌다문화센터를 설립 2010년 3월 개소함
- 안산시는 이주 배경을 가진 아동과 가족에게 복지, 교육, 건강에 대한 통합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인식개선과 참여를 촉진시켜 지역과 함께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0년 3월 개소함
- 안산시 글로벌다문화센터에는 글로벌아동센터, 육아정보나눔터, 공동체 모임방 등이 있으며, 취업프로그램 운영 등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제공 기관임
- 제공되는 서비스는 크게 다문화아동 및 가족을 위한 건강지원 사업, 다문화아동 및 가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다문화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안산시 글로벌아동센터는 2013년 11월 현재 500명(399가구)를 사례관리하고 있으며, 당초 원곡동을 중심으로 제공하던 서비스르 선부동과 대부동까지 대상지역을 확대함
- 사례관리 대상자는 임산부부터 12세 아동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례관리 특성상 18세까지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함
- 일주일 1회, 통합사례관리회의 1회(월)를 개최하여 복지관 등 유관기관과 종합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 현재 안산 글로벌문화센터에는 「온누리반」 등 중도입국 자녀를 대상으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 내 난민, 이주외국인과 조부모, 한국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그 밖에 다문화 자녀 교육 지원 기관은 시도교육청의 다문화전담코디네이터, 지역다문화교육센터, 글로벌선도학교(예비형, 집중지원형, 연구형), 대안학교, 대안교육위탁기관, 학부모교육지원기관, 글로벌브릿지사업운영 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시도교육청은 18개소(서울시교육청 2개), 다문화전담코디네이터 14개소, 지역다문화교육센터 13개소, 다문화전담코디네이터, 지역다문화교육센터, 글로벌선도학교(예비형 32개소, 집중지원형 32개소, 연구형 27개소) 91개소, 대안학교 7개소, 대안교육위탁기관 4개소, 학부모교육지원기관 17개소, 글로벌브릿지사업운영기관 4개소 등이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대외교류협력단), 지역다문화교육센터(제주시교육청 지원 제주다문화교육센터 예비학교), 학부모교

육지원기관(제주다문화교육센터), 글로벌선도학교(집중지원형-백록초등학교), 다문화전담코디네이터(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전담코디네이터) 등 5개 기관이 다문화자녀를 지원하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Ⅲ. 제주지역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욕구조사

1.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본 조사는 제주지역 다문화가족 가운데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함

○ 다문화가정의 자녀 지원 정책을 위한 기초조사로 다문화가족 형성, 자녀, 한국어 수준 등을 토대로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조사대상 및 조사 내용

○ 조사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정
○ 표본추출방법 : 비확률표집법으로 유의표집
○ 조사 내용 : 다문화 가정 구성, 출신국가, 한국어 능력, 경제적 능력, 자녀양육 애로사항, 자녀 교육계획, 모국어 교육계획, 사교육비 지출 정도, 가정 내 소통언어 등의 관련 영역 등 25개 문항
○ 표본 및 추출방법 : 제주특별자치도내 다문화가정 대상자 유의표집
○ 조사기간 : 예비조사 및 본조사(2013. 10. 4. ~ 2013. 10. 17)
○ 자료 처리방법 및 결과분석 : SPSS 12.0을 이용 빈도 및 평균 등 분석
○ 설문지 언어 :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네팔어[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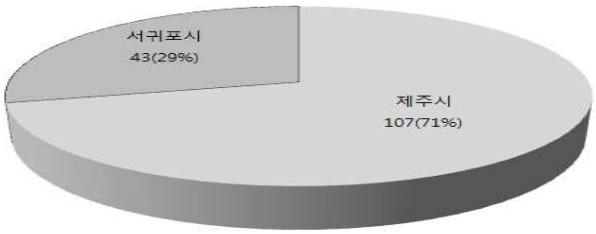
6) 본 연구보고서는 조사한 설문지 가운데 한국어와 중국어만 수록하였음을 미리 밝혀둠

2. 일반적 특성

○ 전체 응답자 150명(유효표본)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함

○ 거주지별로 보면 제주시가 107명으로 응답자의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귀포시는 43명으로 29%에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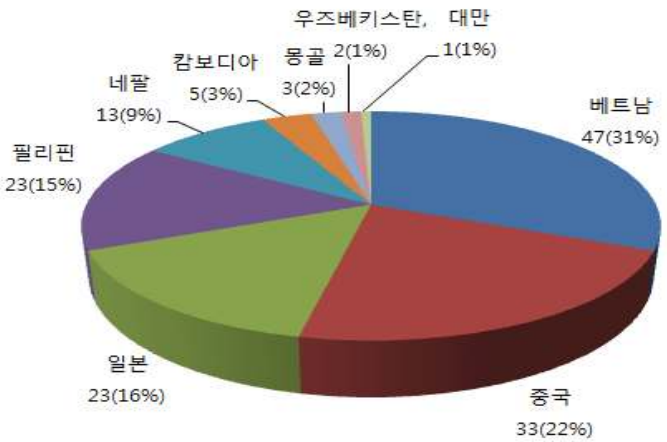
<그림 5> 응답자 거주지역



○ 응답자의 출신국가는 베트남이 47명으로 전체 31%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중국 33명 22%, 일본 23명 16%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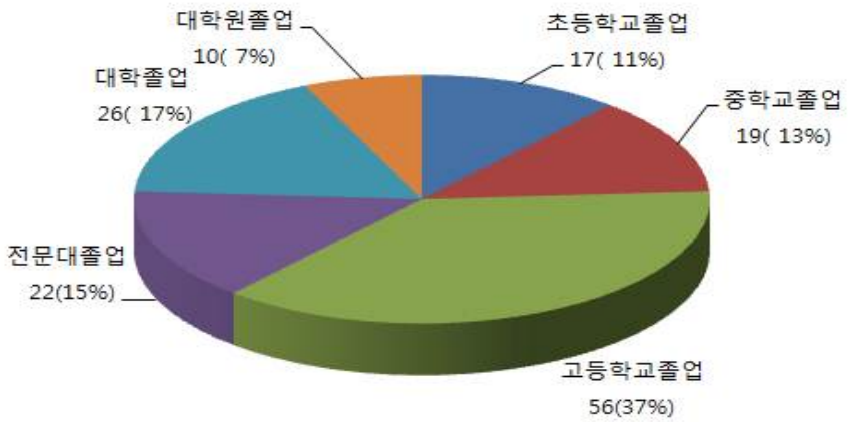
- 당초 결혼이민자 출신국가는 중국 중심에서 동남아지역 출신과 동북아지역 출신이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됨

<그림 6> 응답자 출신국가



○ 응답자의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전체 응답자 가운데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문대 및 대학 졸업과 대학원 졸업도 각각 22명(15%), 26명(17%), 10명(7%)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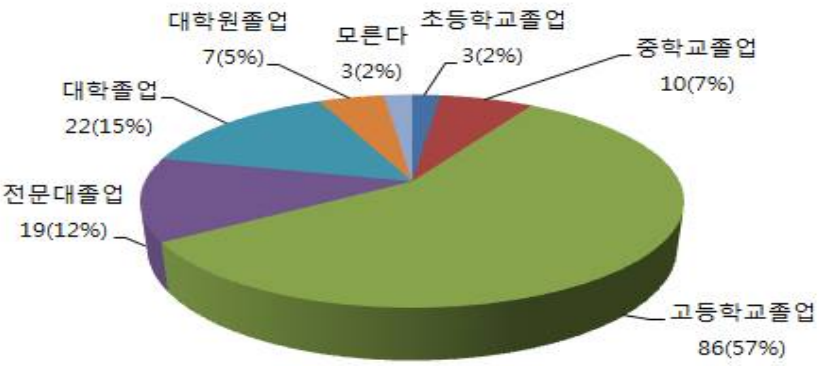
<그림 7> 응답자 최종학력



○ 배우자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86명으로 57%를 차지하였으며, 전문대, 대학 졸업이 각각 19명(12%), 22명(15%)로 나타남

- 배우자의 학력을 모르는 응답자는 3명(2%)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와 배우자의 학력을 비교하였을 때,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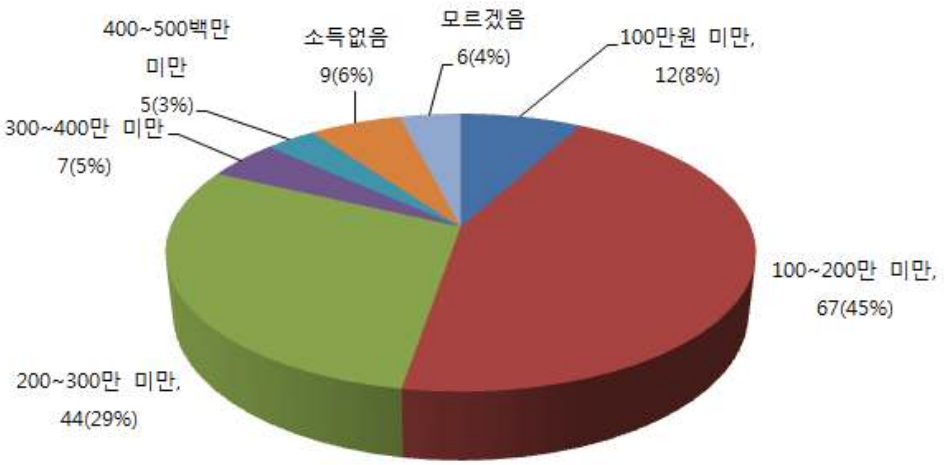
<그림 8> 배우자 최종학력



○ 소득은 100~200백 만원 미만 수준이 67명으로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300만원 미만의 소득 수준이 44명 29%를 차지하고 있음

- 소득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인원은 111명으로 전체 응답자 중 74%로 응답자 대부분은 소득 수준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가구 소득을 모르는 응답자도 6명으로 나타남

<그림 9> 가계 월 평균소득



3. 경제활동 부문

○ 전체 응답자 중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83명(55%)이며, 비경제활동 인구는 67명(45%)으로 나타났음

- 경제활동이 있는 응답자 중 고등학교 졸업자가 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졸이 22명으로 그 다음으로 나타나 대부분 고등교육 이수자를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히 나타남
- 그러나 비경제활동 상태로 응답한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자가 25명으로 가장 많아 고등교육 이수 여부와 달리 이주여성의 출산·육아 등 돌봄노동이 경제활동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표 18> 응답자의 최종학력과 경제활동 유무

경제활동 / 최종학력	경제활동	비경제활동	계
초등학교졸	5 (3%)	12 (8%)	17 (11%)
중학교졸	12 (8%)	7 (5%)	19 (13%)
고등학교졸	31 (21%)	25 (17%)	56 (37%)
전문대졸	9 (6%)	13 (9%)	22 (15%)
대졸	22 (15%)	4 (3%)	26 (17%)
대학원졸	4 (3%)	6 (4%)	10 (7%)
계	83 (55%)	67 (45%)	150 (100%)

○ 경제활동을 답한 83명 중 경제활동 유형을 살펴보면, 아르바이트 36명, 비정규/계약직 35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학력 분포도 각 항목에 따라 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주여성의 학력과 경제활동 유형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19> 응답자의 최종학력과 경제활동 유형

경제활동 / 최종학력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아르바이트	자영업	계
초등학교졸	0 (0%)	2 (2%)	3 (4%)	0 (0%)	5 (6%)
중학교졸	0 (0%)	4 (5%)	8 (10%)	0 (0%)	12 (14%)
고등학교졸	2 (2%)	11 (13%)	16 (19%)	2 (2%)	31 (37%)
전문대졸	0 (0%)	7 (8%)	2 (2%)	0 (0%)	9 (11%)
대졸	6 (7%)	11 (13%)	5 (6%)	0 (0%)	22 (27%)
대학원졸	2 (2%)	0 (0%)	2 (2%)	0 (0%)	4 (5%)
계	10 (12%)	35 (42%)	36 (43%)	2 (2%)	83 (100%)

○ 배우자의 경우 전체 150명 중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132명으로 90%를 차지하였음

-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가 배우자의 학력을 모르는 경우 3명, 비경제활동 15명으로 나타남

<표 20> 배우자의 최종학력과 경제활동 유무

경제활동 / 최종학력	경제활동 있음	경제활동 없음	계
초등학교졸	3 (2%)	0 (0%)	3 (2%)
중학교졸	9 (6%)	1 (1%)	10 (7%)
고등학교졸	81 (55%)	5 (3%)	86 (59%)
전문대졸	16 (11%)	3 (2%)	19 (13%)
대졸	18 (12%)	4 (3%)	22 (15%)
대학원졸	5 (3%)	2 (1%)	7 (5%)
계	132 (90%)	15 (10%)	147 (100%)

○ 배우자의 최종학력과 경제활동 유형을 살펴보면, 비정규직/계약직이 54명, 정규직 39명, 자영업 24명, 아르바이트 16명 순으로 나타났음

- 응답자의 대부분은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최종학력과 경제활동유형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으나, 주로 정규직 또는 비정규/계약직 형태임

<표 21> 배우자의 최종학력과 경제활동 유형

경제활동 / 최종학력	정규직	비정규직/계약직	아르바이트	자영업	계
초등학교졸	0 (0%)	2 (2%)	1 (1%)	0 (0%)	3 (2%)
중학교졸	0 (0%)	5 (4%)	2 (2%)	3 (2%)	10 (8%)
고등학교졸	27 (20%)	30 (23%)	9 (7%)	15 (11%)	81 (61%)
전문대졸	5 (4%)	7 (5%)	2 (2%)	2 (2%)	16 (12%)
대졸	4 (3%)	9 (7%)	2 (2%)	3 (2%)	18 (14%)
대학원졸	3 (2%)	1 (1%)	0 (0%)	1 (1%)	5 (4%)
계	39 (29%)	54 (41%)	16 (12%)	24 (18%)	133 (100%)

○ 응답자의 최종학력과 자녀에 대한 모국어 교육계획을 살펴보면, 꼭 배우게 하고 싶다는 응답이 76명으로 나타나 전체응답 중 51%를 차지하였으며, 가능하면 배우게 하고 싶다는 응답이 59명으로 40%를 차지함

- 결혼이민자는 모국어를 자녀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응답을 하지 않은 인원이 2명이고, 배우게 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 1명으로 나타남에 따라 모국어에 대한 개인적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2> 응답자의 최종학력과 자녀의 모국어 교육 계획

	꼭 배우게 하고싶다	가능하면 배우게 하고 싶다	반반이다	배우게 하고싶지 않다	계
초등학교졸	3 (2%)	12 (8%)	1 (1%)	1 (1%)	17 (11%)
중학교졸	3 (2%)	12 (8%)	3 (2%)	0 (0%)	18 (12%)
고등학교졸	33 (22%)	19 (13%)	3 (2%)	0 (0%)	55 (37%)
전문대졸	13 (9%)	8 (5%)	1 (1%)	0 (0%)	22 (15%)
대졸	17 (11%)	8 (5%)	1 (1%)	0 (0%)	26 (18%)
대학원졸	7 (5%)	0 (0%)	3 (2%)	0 (0%)	10 (7%)
계	76 (51%)	59 (40%)	12 (8%)	1 (1%)	148 (100%)

○ 자녀의 모국어 교육계획이 있다는 응답을 한 인원은 총 147명으로 그 이유는 두 나라의 문화나 말을 잘 하게 하고 싶다는 이유가 49명으로 제일 많았으며, 자녀가 부모의 모어를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6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나의 부모, 형제 등과 의사소통을 위해서 교육계획이 있다는 의견은 35명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들 세 가지 이유가 전체 응답자 중 88%를 차지함

- 진학과 취업에 유리하기 때문에 교육을 계획하는 인원도 9명으로 나타났음

- 가능하면 배우게 하고 싶다는 의견을 보인 응답자는 대부분이 모국의 문화 교육 또는 모국에 있는 가족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교육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23> 응답자의 자녀에 대한 모국어 교육계획과 이유

	①	②	③	④	⑤	⑥	계
꼭 배우게 하고싶다	34 (23%)	3 (2%)	24 (16%)	11 (7%)	3 (2%)	1 (1%)	76 (52%)
가능하면 배우게 하고 싶다	9 (6%)	3 (2%)	22 (15%)	21 (14%)	4 (3%)	0 (0%)	59 (40%)
반반이다	3 (2%)	1 (1%)	3 (2%)	3 (2%)	2 (1%)	0 (0%)	12 (8%)
계	46 (31%)	7 (5%)	49 (33%)	35 (24%)	9 (6%)	1 (1%)	147 (100%)

주. 각 문항은 다음을 나타냄
①자녀가 부모의 모어를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②자녀와 정서적 공감을 위해 필요하다
③두 나라의 문화나 말을 잘 하게 하고 싶어서
④나의 부모, 형제 등과 의사소통을 위해서
⑤진학과 취업에 유리하기 때문에
⑥기타

○ 응답자의 학력과 한국어 능력에 관한 자체진단의 세부적 항목은 총 10개로 다음 표와 같음
○ 응답자의 학력과 한국어 능력에 관한 자체진단의 세부적 항목에 있어서 대부분의 응답자는 본인이 한국어를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표 24> 한국어 능력에 관한 설문의 세부적 항목

구분	항목
한국어능력 1	한국어로 쓴 메모, 안내문을 읽고 이해한다
한국어능력 2	한국어로 쓴 편지, 설명문을 읽고 이해한다
한국어능력 3	한국어로 쓴 신문, 책을 읽고 이해한다
한국어능력 4	한국어로 간단한 인사를 할 수 있다
한국어능력 5	한국어로 일상 대화를 할 수 있다
한국어능력 6	한국어로 일반적인 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
한국어능력 7	한국어로 연설, 토론, 통역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다
한국어능력 8	간단한 한국어 문장을 듣고 이해한다
한국어능력 9	한국어로 진행되는 일반적인 대화를 이해한다
한국어능력 10	한국어 뉴스를 이해할 수 있다

<표 25> 응답자 학력과 한국어능력 1

	매우 못한다	못한다	보통이다	잘하는편이다	매우잘한다	계
초등학교졸	2 (1%)	6 (4%)	7 (5%)	2 (1%)	0 (0%)	17 (11%)
중학교졸	2 (1%)	6 (4%)	4 (3%)	5 (3%)	1 (1%)	18 (12%)
고등학교졸	4 (3%)	7 (5%)	21 (14%)	13 (9%)	11 (7%)	56 (38%)
전문대졸	3 (2%)	3 (2%)	6 (4%)	5 (3%)	5 (3%)	22 (15%)
대졸	1 (1%)	3 (2%)	3 (2%)	8 (5%)	11 (7%)	26 (17%)
대학원졸	1 (1%)	2 (1%)	1 (1%)	2 (1%)	4 (3%)	10 (7%)
계	13 (9%)	27 (18%)	42 (28%)	35 (23%)	32 (21%)	149 (100%)

<표 26> 응답자 학력과 한국어능력 2

	매우 못한다	못한다	보통이다	잘하는편이다	매우잘한다	계
초등학교졸	2 (1%)	6 (4%)	7 (5%)	2 (1%)	0 (0%)	17 (11%)
중학교졸	6 (4%)	3 (2%)	6 (4%)	2 (1%)	1 (1%)	18 (12%)
고등학교졸	6 (4%)	5 (3%)	21 (14%)	14 (9%)	10 (7%)	56 (38%)
전문대졸	3 (2%)	3 (2%)	7 (5%)	4 (3%)	5 (3%)	22 (15%)
대졸	1 (1%)	3 (2%)	4 (3%)	7 (5%)	11 (7%)	26 (17%)
대학원졸	2 (1%)	1 (1%)	2 (1%)	0 (0%)	5 (3%)	10 (7%)
계	20 (13%)	21 (14%)	47 (32%)	29 (19%)	32 (21%)	149 (100%)

<표 27> 응답자 학력과 한국어능력 3

	매우 못한다	못한다	보통이다	잘하는편이다	매우잘한다	계
초등학교졸	4 (3%)	5 (3%)	7 (5%)	1 (1%)	0 (0%)	17 (11%)
중학교졸	4 (3%)	3 (2%)	5 (3%)	5 (3%)	0 (0%)	17 (11%)
고등학교졸	5 (3%)	6 (4%)	25 (17%)	10 (7%)	10 (7%)	56 (38%)
전문대졸	4 (3%)	2 (1%)	9 (6%)	5 (3%)	2 (1%)	22 (15%)
대졸	1 (1%)	4 (3%)	5 (3%)	7 (5%)	9 (6%)	26 (18%)
대학원졸	2 (1%)	0 (0%)	2 (1%)	1 (1%)	5 (3%)	10 (7%)
계	20 (14%)	20 (14%)	53 (36%)	29 (20%)	26 (18%)	148 (100%)

<표 28> 응답자 학력과 한국어능력 4

	매우 못한다	못한다	보통이다	잘하는편이다	매우잘한다	계
초등학교졸	2 (1%)	0 (0%)	6 (4%)	7 (5%)	1 (1%)	16 (11%)
중학교졸	1 (1%)	1 (1%)	4 (3%)	7 (5%)	4 (3%)	17 (12%)
고등학교졸	4 (3%)	4 (3%)	9 (6%)	15 (10%)	24 (16%)	56 (38%)
전문대졸	2 (1%)	3 (2%)	5 (3%)	5 (3%)	7 (5%)	22 (15%)
대졸	2 (1%)	1 (1%)	1 (1%)	6 (4%)	16 (11%)	26 (18%)
대학원졸	1 (1%)	1 (1%)	1 (1%)	1 (1%)	6 (4%)	10 (7%)
계	12 (8%)	10 (7%)	26 (18%)	41 (28%)	58 (39%)	147 (100%)

<표 28> 응답자 학력과 한국어능력 5

	매우못한다	못한다	보통이다	잘하는편이다	매우잘한다	계
초등학교 졸	2 (1%)	1 (1%)	10 (7%)	3 (2%)	1 (1%)	17 (11%)
중학교졸	1 (1%)	2 (1%)	9 (6%)	3 (2%)	3 (2%)	18 (12%)
고등학교 졸	4 (3%)	3 (2%)	17 (11%)	15 (10%)	17 (11%)	56 (38%)
전문대졸	3 (2%)	2 (1%)	7 (5%)	5 (3%)	5 (3%)	22 (15%)
대졸	1 (1%)	2 (1%)	3 (2%)	6 (4%)	14 (9%)	26 (17%)
대학원졸	1 (1%)	2 (1%)	2 (1%)	0 (0%)	5 (3%)	10 (7%)
계	12 (8%)	12 (8%)	48 (32%)	32 (21%)	45 (30%)	149 (100%)

<표 30> 응답자 학력과 한국어능력 6

	매우못한다	못한다	보통이다	잘하는편이다	매우잘한다	계
초등학교 졸	3 (2%)	4 (3%)	8 (5%)	1 (1%)	1 (1%)	17 (11%)
중학교졸	1 (1%)	3 (2%)	8 (5%)	5 (3%)	1 (1%)	18 (12%)
고등학교 졸	4 (3%)	7 (5%)	21 (14%)	13 (9%)	11 (7%)	56 (38%)
전문대졸	3 (2%)	5 (3%)	5 (3%)	4 (3%)	5 (3%)	22 (15%)
대졸	1 (1%)	3 (2%)	2 (1%)	8 (5%)	12 (8%)	26 (18%)
대학원졸	1 (1%)	1 (1%)	2 (1%)	0 (0%)	5 (3%)	9 (6%)
계	13 (9%)	23 (16%)	46 (31%)	31 (21%)	35 (24%)	148 (100%)

<표 31> 응답자 학력과 한국어능력 7

	매우못한다	못한다	보통이다	잘하는편이다	매우잘한다	계
초등학교졸	5 (3%)	4 (3%)	7 (5%)	0 (0%)	1 (1%)	17 (11%)
중학교졸	5 (3%)	7 (5%)	5 (3%)	1 (1%)	0 (0%)	18 (12%)
고등학교졸	9 (6%)	9 (6%)	21 (14%)	11 (7%)	6 (4%)	56 (38%)
전문대졸	5 (3%)	5 (3%)	5 (3%)	5 (3%)	2 (1%)	22 (15%)
대졸	2 (1%)	2 (1%)	7 (5%)	7 (5%)	8 (5%)	26 (18%)
대학원졸	1 (1%)	1 (1%)	2 (1%)	2 (1%)	3 (2%)	9 (6%)
계	27 (18%)	28 (19%)	47 (32%)	26 (18%)	20 (14%)	148 (100%)

<표 32> 응답자 학력과 한국어능력 8

	매우못한다	못한다	보통이다	잘하는편이다	매우 잘한다	계
초등학교졸	2 (1%)	4 (3%)	10 (7%)	1 (1%)	0 (0%)	17 (11%)
중학교졸	1 (1%)	7 (5%)	3 (2%)	5 (3%)	2 (1%)	18 (12%)
고등학교졸	4 (3%)	4 (3%)	19 (13%)	18 (12%)	11 (7%)	56 (38%)
전문대졸	3 (2%)	4 (3%)	5 (3%)	2 (1%)	8 (5%)	22 (15%)
대졸	2 (1%)	1 (1%)	2 (1%)	6 (4%)	15 (10%)	26 (17%)
대학원졸	1 (1%)	1 (1%)	2 (1%)	2 (1%)	4 (3%)	10 (7%)
계	13 (9%)	21 (14%)	41 (28%)	34 (23%)	40 (27%)	149 (100%)

<표 33> 응답자 학력과 한국어능력 9

	매우못한다	못한다	보통이다	잘하는편이다	매우 잘한다	계
초등학교 졸	2 (1%)	2 (1%)	10 (7%)	3 (2%)	0 (0%)	17 (11%)
중학교졸	1 (1%)	5 (3%)	8 (5%)	4 (3%)	0 (0%)	18 (12%)
고등학교 졸	4 (3%)	6 (4%)	20 (13%)	16 (11%)	10 (7%)	56 (38%)
전문대졸	2 (1%)	3 (2%)	7 (5%)	4 (3%)	6 (4%)	22 (15%)
대졸	1 (1%)	2 (1%)	3 (2%)	7 (5%)	13 (9%)	26 (17%)
대학원졸	1 (1%)	1 (1%)	2 (1%)	2 (1%)	4 (3%)	10 (7%)
계	11 (7%)	19 (13%)	50 (34%)	36 (24%)	33 (22%)	149 (100%)

<표 34> 응답자 학력과 한국어능력 10

	매우못한다	못한다	보통이다	잘하는편이다	매우 잘한다	계
초등학교 졸	3 (2%)	7 (5%)	6 (4%)	1 (1%)	0 (0%)	17 (11%)
중학교졸	5 (3%)	5 (3%)	6 (4%)	1 (1%)	0 (0%)	17 (11%)
고등학교 졸	7 (5%)	8 (5%)	21 (14%)	10 (7%)	10 (7%)	56 (38%)
전문대졸	4 (3%)	5 (3%)	4 (3%)	7 (5%)	2 (1%)	22 (15%)
대졸	0 (0%)	4 (3%)	6 (4%)	7 (5%)	9 (6%)	26 (18%)
대학원졸	1 (1%)	1 (1%)	2 (1%)	1 (1%)	5 (3%)	10 (7%)
계	20 (14%)	30 (20%)	45 (30%)	27 (18%)	26 (18%)	148 (100%)

○ 자녀 언어발달 능력에 관한 설문은 총 6개의 세부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음

- 자녀 언어발달능력에 대해서 응답자의 자녀 나이가 저연령인 경우 해당항목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응답을 하지 않았으며, 한 자녀로 자녀의 발달정도를 비교하지 못하는 부분 역시 응답을 하지 않아 전체 조사자 150명 대비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함
- 대체적으로 자녀 언어발달능력은 대부분 중간 이상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응답자 본인의 학력과 배우자의 학력과 무관하게 중간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음
- 대부분 어린이집 또는 학교에서 대화하고 언어발달능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이 있어 부모의 학력과는 언어발달능력에 있어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음

<표 35> 자녀 언어발달 능력에 관한 설문의 세부적 항목

구 분	항 목
자녀 언어발달능력 1	또래아이들에 비하여 한국어를 잘 못한다고 생각한다
자녀 언어발달능력 2	한국어로 된 책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자녀 언어발달능력 3	한국어로 토론을 할 수 있다
자녀 언어발달능력 4	한국어 문장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자녀 언어발달능력 5	선생님이나 또래아이들과 대화를 할 수 있다
자녀 언어발달능력 6	한국어로 발표를 할 수 있다

<표 36> 응답자 학력과 자녀언어발달능력 1

	매우못한다	못한다	보통이다	잘하는편이다	매우 잘한다	계
초등학교 졸	2 (1%)	2 (1%)	7 (5%)	3 (2%)	1 (1%)	15 (11%)
중학교졸	1 (1%)	3 (2%)	8 (6%)	3 (2%)	2 (1%)	17 (13%)
고등학교 졸	5 (4%)	4 (3%)	14 (10%)	9 (7%)	18 (13%)	50 (37%)
전문대졸	5 (4%)	1 (1%)	6 (4%)	3 (2%)	6 (4%)	21 (16%)
대졸	1 (1%)	0 (0%)	7 (5%)	7 (5%)	8 (6%)	23 (17%)
대학원졸	1 (1%)	0 (0%)	2 (1%)	0 (0%)	5 (4%)	8 (6%)
계	15 (11%)	10 (7%)	44 (33%)	25 (19%)	40 (30%)	134 (100%)

<표 37> 응답자 학력과 자녀언어발달능력 2

	매우못한다	못한다	보통이다	잘하는편이다	매우 잘한다	계
초등학교 졸	3 (2%)	3 (2%)	5 (4%)	2 (2%)	1 (1%)	14 (11%)
중학교졸	1 (1%)	7 (6%)	3 (2%)	4 (3%)	2 (2%)	17 (13%)
고등학교 졸	9 (7%)	6 (5%)	12 (10%)	7 (6%)	12 (10%)	46 (37%)
전문대졸	6 (5%)	1 (1%)	4 (3%)	2 (2%)	6 (5%)	19 (15%)
대졸	2 (2%)	0 (0%)	3 (2%)	2 (2%)	17 (13%)	24 (19%)
대학원졸	1 (1%)	0 (0%)	0 (0%)	0 (0%)	5 (4%)	6 (5%)
계	22 (17%)	17 (13%)	27 (21%)	17 (13%)	43 (34%)	126 (100%)

<표 38> 응답자 학력과 자녀언어발달능력 3

	매우못한다	못한다	보통이다	잘하는편이다	매우 잘한다	계
초등학교졸	5 (5%)	1 (1%)	1 (1%)	2 (2%)	0 (0%)	9 (9%)
중학교졸	4 (4%)	2 (2%)	1 (1%)	3 (3%)	0 (0%)	10 (10%)
고등학교졸	12 (12%)	3 (3%)	7 (7%)	5 (5%)	11 (11%)	38 (39%)
전문대졸	6 (6%)	1 (1%)	1 (1%)	2 (2%)	3 (3%)	13 (13%)
대졸	2 (2%)	0 (0%)	4 (4%)	7 (7%)	9 (9%)	22 (22%)
대학원졸	1 (1%)	0 (0%)	0 (0%)	0 (0%)	5 (5%)	6 (6%)
계	30 (31%)	7 (7%)	14 (14%)	19 (19%)	28 (29%)	98 (100%)

<표 39> 응답자 학력과 자녀언어발달능력 4

	매우못한다	못한다	보통이다	잘하는편이다	매우 잘한다	계
초등학교졸	3 (2%)	1 (1%)	6 (5%)	0 (0%)	3 (2%)	13 (11%)
중학교졸	2 (2%)	4 (3%)	6 (5%)	3 (2%)	1 (1%)	16 (13%)
고등학교졸	8 (7%)	6 (5%)	8 (7%)	8 (7%)	15 (12%)	45 (37%)
전문대졸	4 (3%)	2 (2%)	4 (3%)	1 (1%)	6 (5%)	17 (14%)
대졸	2 (2%)	0 (0%)	3 (2%)	2 (2%)	17 (14%)	24 (20%)
대학원졸	1 (1%)	0 (0%)	0 (0%)	0 (0%)	5 (4%)	6 (5%)
계	20 (17%)	13 (11%)	27 (22%)	14 (12%)	47 (39%)	121 (100%)

<표 40> 응답자 학력과 자녀언어발달능력 5

	매우못한다	못한다	보통이다	잘하는편이다	매우 잘한다	계
초등학교졸	2 (2%)	0 (0%)	6 (5%)	2 (2%)	2 (2%)	12 (10%)
중학교졸	1 (1%)	5 (4%)	4 (3%)	4 (3%)	3 (2%)	17 (14%)
고등학교졸	5 (4%)	4 (3%)	11 (9%)	8 (7%)	18 (15%)	46 (38%)
전문대졸	4 (3%)	1 (1%)	1 (1%)	5 (4%)	6 (5%)	17 (14%)
대졸	1 (1%)	0 (0%)	4 (3%)	2 (2%)	17 (14%)	24 (20%)
대학원졸	1 (1%)	0 (0%)	0 (0%)	0 (0%)	5 (4%)	6 (5%)
계	14 (11%)	10 (8%)	26 (21%)	21 (17%)	51 (42%)	122 (100%)

<표 41> 응답자 학력과 자녀언어발달능력 6

	매우못한다	못한다	보통이다	잘하는편이다	매우 잘한다	계
초등학교졸	3 (3%)	2 (2%)	1 (1%)	1 (1%)	2 (2%)	9 (8%)
중학교졸	2 (2%)	5 (5%)	3 (3%)	2 (2%)	2 (2%)	14 (13%)
고등학교졸	8 (7%)	9 (8%)	3 (3%)	7 (6%)	12 (11%)	39 (36%)
전문대졸	6 (6%)	0 (0%)	4 (4%)	2 (2%)	5 (5%)	17 (16%)
대졸	1 (1%)	0 (0%)	5 (5%)	3 (3%)	14 (13%)	23 (21%)
대학원졸	1 (1%)	0 (0%)	0 (0%)	0 (0%)	5 (5%)	6 (6%)
계	21 (19%)	16 (15%)	16 (15%)	15 (14%)	40 (37%)	108 (100%)

<표 42> 배우자 학력과 자녀언어발달능력 1

	매우못한다	못한다	보통이다	잘하는편이다	매우 잘한다	계
초등학교졸	0 (0%)	0 (0%)	1 (1%)	0 (0%)	0 (0%)	1 (1%)
중학교졸	0 (0%)	1 (1%)	4 (3%)	0 (0%)	4 (3%)	9 (7%)
고등학교졸	6 (5%)	8 (6%)	28 (21%)	10 (8%)	26 (20%)	78 (60%)
전문대졸	3 (2%)	0 (0%)	5 (4%)	6 (5%)	4 (3%)	18 (14%)
대졸	2 (2%)	1 (1%)	6 (5%)	6 (5%)	5 (4%)	20 (15%)
대학원졸	2 (2%)	0 (0%)	0 (0%)	2 (2%)	1 (1%)	5 (4%)
계	13 (10%)	10 (8%)	44 (34%)	24 (18%)	40 (31%)	131 (100%)

<표 43> 배우자 학력과 자녀언어발달능력 2

	매우못한다	못한다	보통이다	잘하는편이다	매우 잘한다	계
초등학교졸	0 (0%)	0 (0%)	0 (0%)	1 (1%)	0 (0%)	1 (1%)
중학교졸	1 (1%)	1 (1%)	3 (2%)	0 (0%)	4 (3%)	9 (7%)
고등학교졸	11 (9%)	13 (10%)	18 (15%)	8 (6%)	25 (20%)	75 (60%)
전문대졸	2 (2%)	1 (1%)	5 (4%)	3 (2%)	6 (5%)	17 (14%)
대졸	4 (3%)	1 (1%)	1 (1%)	5 (4%)	6 (5%)	17 (14%)
대학원졸	2 (2%)	1 (1%)	0 (0%)	0 (0%)	2 (2%)	5 (4%)
계	20 (16%)	17 (14%)	27 (22%)	17 (14%)	43 (35%)	124 (100%)

<표 44> 배우자 학력과 자녀언어발달능력 3

	매우못한다	못한다	보통이다	잘하는편이다	매우 잘한다	계
초등학교졸	0 (0%)	0 (0%)	0 (0%)	0 (0%)	0 (0%)	0 (0%)
중학교졸	1 (1%)	2 (2%)	0 (0%)	0 (0%)	4 (4%)	7 (7%)
고등학교졸	19 (20%)	4 (4%)	9 (9%)	10 (10%)	15 (16%)	57 (59%)
전문대졸	3 (3%)	1 (1%)	3 (3%)	3 (3%)	4 (4%)	14 (15%)
대졸	3 (3%)	0 (0%)	2 (2%)	5 (5%)	4 (4%)	14 (15%)
대학원졸	2 (2%)	0 (0%)	0 (0%)	1 (1%)	1 (1%)	4 (4%)
계	28 (29%)	7 (7%)	14 (15%)	19 (20%)	28 (29%)	96 (100%)

<표 45> 배우자 학력과 자녀언어발달능력 4

	매우못한다	못한다	보통이다	잘하는편이다	매우 잘한다	계
초등학교졸	0 (0%)	0 (0%)	0 (0%)	0 (0%)	1 (1%)	1 (1%)
중학교졸	0 (0%)	2 (2%)	2 (2%)	0 (0%)	4 (3%)	8 (7%)
고등학교졸	11 (9%)	11 (9%)	16 (13%)	7 (6%)	27 (23%)	72 (61%)
전문대졸	2 (2%)	0 (0%)	5 (4%)	2 (2%)	6 (5%)	15 (13%)
대졸	3 (3%)	0 (0%)	4 (3%)	5 (4%)	6 (5%)	18 (15%)
대학원졸	2 (2%)	0 (0%)	0 (0%)	0 (0%)	3 (3%)	5 (4%)
계	18 (15%)	13 (11%)	27 (23%)	14 (12%)	47 (39%)	119 (100%)

<표 46> 배우자 학력과 자녀언어발달능력 5

	매우못한다	못한다	보통이다	잘하는편이다	매우잘한다	계
초등학교졸	0 (0%)	0 (0%)	0 (0%)	0 (0%)	0 (0%)	0 (0%)
중학교졸	0 (0%)	1 (1%)	3 (3%)	0 (0%)	4 (3%)	8 (7%)
고등학교졸	6 (5%)	9 (8%)	19 (16%)	10 (8%)	29 (24%)	73 (61%)
전문대졸	2 (2%)	0 (0%)	3 (3%)	3 (3%)	8 (7%)	16 (13%)
대졸	2 (2%)	0 (0%)	1 (1%)	7 (6%)	8 (7%)	18 (15%)
대학원졸	2 (2%)	0 (0%)	0 (0%)	1 (1%)	2 (2%)	5 (4%)
계	12 (10%)	10 (8%)	26 (22%)	21 (18%)	51 (43%)	120 (100%)

<표 47> 배우자 학력과 자녀언어발달능력 6

	매우못한다	못한다	보통이다	잘하는편이다	매우 잘한다	계
초등학교졸	0 (0%)	0 (0%)	0 (0%)	0 (0%)	0 (0%)	0 (0%)
중학교졸	0 (0%)	2 (2%)	0 (0%)	0 (0%)	4 (4%)	6 (6%)
고등학교졸	11 (10%)	12 (11%)	12 (11%)	7 (7%)	24 (23%)	66 (62%)
전문대졸	3 (3%)	1 (1%)	3 (3%)	3 (3%)	5 (5%)	15 (14%)
대졸	3 (3%)	1 (1%)	1 (1%)	4 (4%)	5 (5%)	14 (13%)
대학원졸	2 (2%)	0 (0%)	0 (0%)	1 (1%)	2 (2%)	5 (5%)
계	19 (18%)	16 (15%)	16 (15%)	15 (14%)	40 (38%)	10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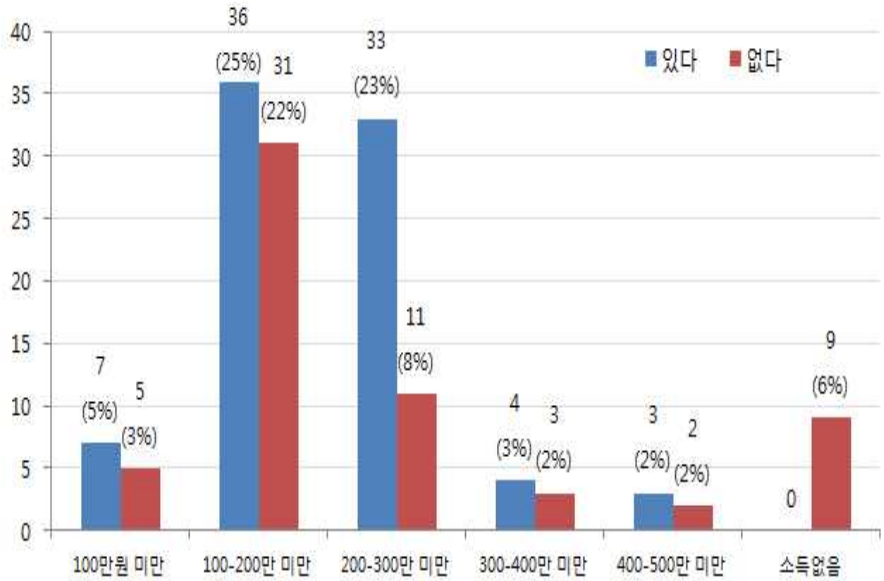
4. 가구 소득 부문

○ 가구소득과 응답자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를 살펴보면 소득 구간이 가장 많은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구간에서 비슷하게 나타남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소득군에 있어 일자리가 있다고 응답한 부분이 없다는 응답보다 세 배 가량 많으며 소득이 올라갈수록 응답자의 경제활동 여부가 가구 소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자리가 있다고 응답한 대다수는 비정규/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로서 규정된 시간근무형태를 보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0> 가구소득과 경제활동 참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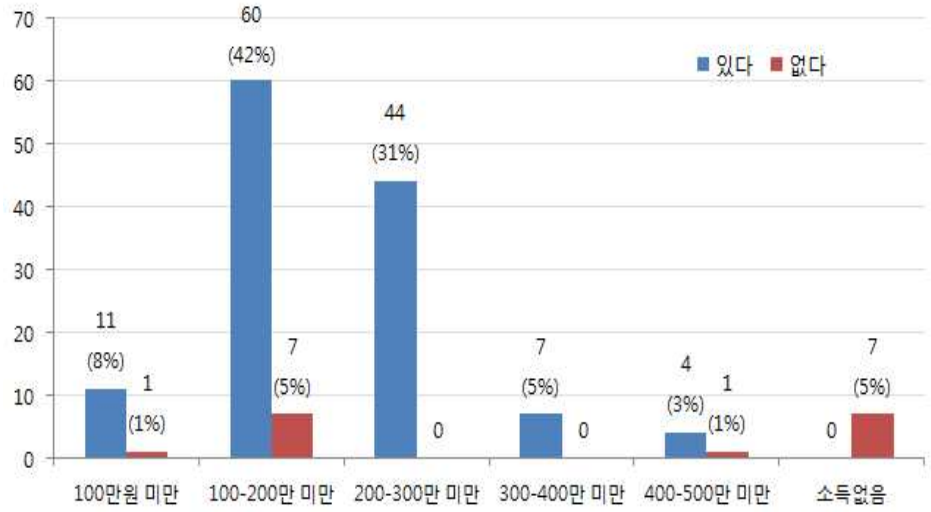
<표 48> 가구소득과 응답자 근무형태

	정규직	비정규직/계약직	아르바이트	자영업	계
100만원 미만	0 (0%)	1 (1%)	6 (7%)	0 (0%)	7 (8%)
100-200만원 미만	4 (5%)	13 (16%)	18 (22%)	1 (1%)	36 (43%)
200-300만원 미만	4 (5%)	19 (23%)	10 (12%)	0 (0%)	33 (40%)
300-400만원 미만	1 (1%)	2 (2%)	1 (1%)	0 (0%)	4 (5%)
400-500만원 미만	1 (1%)	0 (0%)	0 (0%)	1 (1%)	2 (2%)
소득없음	0 (0%)	0 (0%)	1 (1%)	0 (0%)	1 (1%)
계	10 (12%)	35 (42%)	36 (43%)	2 (2%)	83 (100%)

○ 가구소득과 배우자의 일자리 유무를 살펴보면 소득 구간이 가장 많은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구간에서 대부분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소득군에 있어서 일자리가 있다고 응답한 부분은 100%로서 소득이 중소득 이상을 나타내는 구간에 있어서 모두 직업을 가지고 가구소득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자리가 있다고 응답한 대다수는 비정규/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서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이거나 근무시간이 정해진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1> 가구소득과 배우자 경제활동



<표 49> 가구소득과 배우자 근무형태

	정규직	비정규직/계약직	아르바이트	자영업	계
100만원 미만	2 (2%)	4 (3%)	5 (4%)	1 (1%)	12 (9%)
100-200만원 미만	14 (11%)	25 (20%)	8 (6%)	13 (10%)	60 (47%)
200-300만원 미만	18 (14%)	18 (14%)	3 (2%)	5 (4%)	44 (35%)
300-400만원 미만	2 (2%)	3 (2%)	0 (0%)	2 (2%)	7 (6%)
400-500만원 미만	1 (1%)	0 (0%)	0 (0%)	3 (2%)	4 (3%)
계	37 (29%)	50 (39%)	16 (13%)	24 (19%)	127 (100%)

○ 가구 소득과 응답자의 일상 언어에 있어서 대부분은 한국어와 모국어를 같이 사용하거나 한국어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군이 다르더라도 가장 많은 항목을 차지하는 것은 한국어와 모국어를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서 가정 또는 주변 지인들과의 소통에 있어서 두 언어를 모두 사용하는 빈도가 높음을 알 수 있음

<표 50> 가구소득과 응답자의 일상 언어

	한국어 모국어 동시	한국어만	모국어만	한국어도 모국어도 아닌 다른 언어	계
100만원 미만	8 (6%)	3 (2%)	0 (0%)	0 (0%)	11 (8%)
100~200만원 미만	43 (30%)	22 (15%)	1 (1%)	1 (1%)	67 (47%)
200~300만원 미만	29 (20%)	14 (10%)	1 (1%)	0 (0%)	44 (31%)
300~400만원 미만	2 (1%)	4 (3%)	1 (1%)	0 (0%)	7 (5%)
400~500만원 미만	2 (1%)	2 (1%)	1 (1%)	0 (0%)	5 (3%)
소득없음	2 (1%)	0 (0%)	7 (5%)	0 (0%)	9 (6%)
계	86 (60%)	45 (31%)	11 (8%)	1 (1%)	143 (100%)

○ 가구 소득과 응답자의 가족 간 한국어 대화 이해도를 보면 거의 다 이해한다는 의견이 66명으로 46%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못 알아듣는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 이해한다는 의견이 47명으로 전체 중 33%를 차지함

- 소득구간별로 보았을 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구간에 있어서 거의 다 이해한다는 답변이 26명, 못 알아듣는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 이해한다는 답변이 28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이해를 하지만 일부 대화에 있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구간에서는 거의 다 이해한다는 답변이 26명으로 못 알아듣는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 이해한다는 응답자에 비하여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51> 가구소득과 가족과의 한국어 대화 이해

	①	②	③	④	⑤	계
100만원 미만	3 (2%)	5 (3%)	2 (1%)	1 (1%)	0 (0%)	11 (8%)
100~200만원 미만	26 (18%)	28 (20%)	12 (8%)	1 (1%)	0 (0%)	67 (47%)
200~300만원 미만	26 (18%)	12 (8%)	5 (3%)	1 (1%)	0 (0%)	44 (31%)
300~400만원 미만	6 (4%)	1 (1%)	0 (0%)	0 (0%)	0 (0%)	7 (5%)
400~500만원 미만	4 (3%)	0 (0%)	1 (1%)	0 (0%)	0 (0%)	5 (3%)
소득없음	1 (1%)	1 (1%)	0 (0%)	2 (1%)	5 (3%)	9 (6%)
계	66 (46%)	47 (33%)	20 (14%)	5 (3%)	5 (3%)	143 (100%)

주) 각 번호는 다음과 같음

① 거의 다 이해한다

② 못 알아듣는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 이해한다

③ 반은 이해하고, 반은 모르겠다

④ 조금 알아듣고 대부분 이해하지 못한다

⑤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 가구소득과 가족간 갈등관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응답이 응답자와 배우자 간 갈등이 103명으로 전체 응답자 중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응답은 대부분 3~13% 수준의 응답을 보임

<표 52> 가구소득과 가족간 갈등관계

	남편-나	남편-자녀	나-자녀	자녀-자녀	시부모-나	시부모-자녀	남편형제-나	계
100만원 미만	11 (8%)	0 (0%)	1 (1%)	0 (0%)	0 (0%)	0 (0%)	0 (0%)	12 (8%)
100~200 만원 미만	46 (32%)	5 (3%)	6 (4%)	1 (1%)	6 (4%)	1 (1%)	2 (1%)	67 (47%)
200~300 만원 미만	29 (20%)	2 (1%)	5 (3%)	2 (1%)	4 (3%)	0 (0%)	2 (1%)	44 (31%)
300~400 만원 미만	5 (3%)	0 (0%)	0 (0%)	2 (1%)	0 (0%)	0 (0%)	0 (0%)	7 (5%)
400~500 만원 미만	3 (2%)	1 (1%)	1 (1%)	0 (0%)	0 (0%)	0 (0%)	0 (0%)	5 (3%)
소득없음	9 (6%)	0 (0%)	0 (0%)	0 (0%)	0 (0%)	0 (0%)	0 (0%)	9 (6%)
계	103 (72%)	8 (6%)	13 (9%)	5 (3%)	10 (7%)	1 (1%)	4 (3%)	144 (100%)

○ 가구소득과 자녀의 교육계획 유무를 살펴보면, 대부분 교육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교육계획이 없다는 답변도 총 22명으로 나타났으며, 소득구간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구간이 11명으로 50%를 차지함
- 또한 동 구간에서 모르겠다는 의견도 전체 19명 중 11명으로 절대 다수의견이 반영됨
- 이 구간에서의 응답자들이 주로 교육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대부

분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를 모른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또 한편 우리나라 학교교육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있음

- 대체적으로 응답자의 71%가 교육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 구간별로 소득과 무관하게 교육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53> 가구소득과 자녀 교육계획 유무

	있다	없다	모르겠다	계
100만원 미만	6 (4%)	3 (2%)	2 (1%)	11 (8%)
100~200만 미만	45 (31%)	11 (8%)	11 (8%)	67 (47%)
200~300만 미만	33 (23%)	7 (5%)	4 (3%)	44 (31%)
300~400만 미만	6 (4%)	0 (0%)	1 (1%)	7 (5%)
400~500만 미만	3 (2%)	1 (1%)	1 (1%)	5 (3%)
소득없음	9 (6%)	0 (0%)	0 (0%)	9 (6%)
계	102 (71%)	22 (15%)	19 (13%)	143 (100%)

○ 가구소득과 응답자 모국어 교육계획에 있어서 대부분은 소득과 상관없이 모국어 교육에 대한 교육을 희망하고 있음

○ 이는 가구소득과 응답자 본인의 모국어에 대한 생각이 별개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나타냄

<표 54> 가구소득과 응답자 모국어 교육계획

	꼭 배우게 하고싶다	가능하면 배우게 하고 싶다	반반이다	배우게 하고 싶지 않다	계
100만원 미만	5 (4%)	6 (4%)	0 (0%)	0 (0%)	11 (8%)
100~200 만원 미만	24 (17%)	32 (23%)	9 (6%)	1 (1%)	66 (46%)
200~300 만원 미만	26 (18%)	15 (11%)	3 (2%)	0 (0%)	44 (31%)
300~400 만원 미만	7 (5%)	0 (0%)	0 (0%)	0 (0%)	7 (5%)
400~500 만원 미만	4 (3%)	1 (1%)	0 (0%)	0 (0%)	5 (4%)
소득없음	7 (5%)	2 (1%)	0 (0%)	0 (0%)	9 (6%)
계	73 (51%)	56 (39%)	12 (8%)	1 (1%)	142 (100%)

○ 가구소득과 자녀의 애로사항에 있어서 응답자의 60%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응답함

- 애로사항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전체 40%로 소득구간별로 어려움에 대하여 비슷한 수준으로 가구 소득과 자녀와의 관계가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응답자의 대부분이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거나 초등학생으로 크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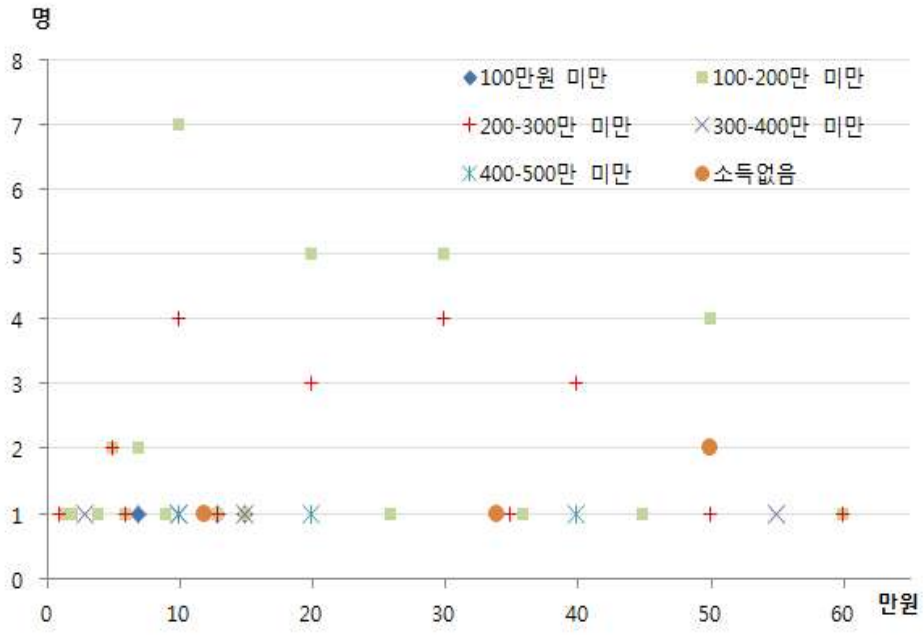
<표 55> 가구소득과 자녀의 학교 또는 어린이집 애로사항

	있다	없다	계
100만원 미만	4 (3%)	7 (5%)	11 (8%)
100~200만원 미만	25 (18%)	40 (29%)	65 (47%)
200~300만원 미만	16 (12%)	27 (19%)	43 (31%)
300~400만원 미만	3 (2%)	3 (2%)	6 (4%)
400~500만원 미만	1 (1%)	4 (3%)	5 (4%)
소득없음	7 (5%)	2 (1%)	9 (6%)
계	56 (40%)	83 (60%)	139 (100%)

○ 조사결과 소득을 토대로 사교육비 지출 의향에 대하여 소득구간별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음

- 우선, 응답자들의 경우 초등학생은 방과 후 교실 등 학교를 중심으로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을 선호하고 있음
- 응답자 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경우 사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소득별 사교육비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는 한계가 있음
-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사교육비 지출이 이루어지는 것은 시부모 또는 다른 가족구성원의 지원으로 볼 수 있음

<그림 12> 가구소득과 사교육비 지출



5. 출신국가 부문

○ 응답자의 출신국가와 최종학력을 살펴보면, 국가의 경제력 또는 교육 인프라가 확충될수록 최종학력이 높게 나타남

- 상위그룹은 일본 국적으로 최저학력이 고졸이며, 세계에서 최빈국에 들어가는 캄보디아의 경우 최고학력이 중졸로 응답하였음
- 다른 국가들은 개발도상국으로서 교육 수준은 점차 고졸 이상으로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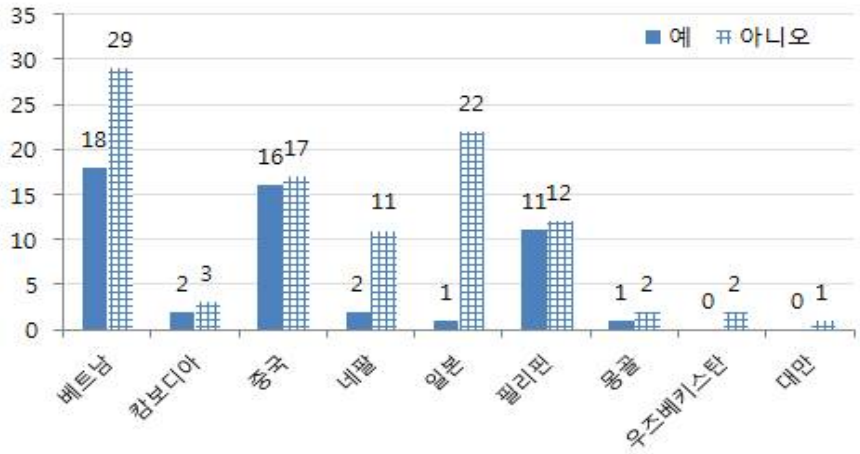
<표 56> 응답자의 출신국가와 최종학력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계
베트남	9 (6%)	14 (9%)	17 (11%)	4 (3%)	3 (2%)	0 (0%)	47 (31%)
중국	0 (0%)	2 (1%)	13 (9%)	9 (6%)	6 (4%)	3 (2%)	33 (22%)
일본	0 (0%)	0 (0%)	10 (7%)	3 (2%)	9 (6%)	1 (1%)	23 (15%)
필리핀	2 (1%)	1 (1%)	8 (5%)	2 (1%)	5 (3%)	5 (3%)	23 (15%)
네팔	2 (1%)	1 (1%)	7 (5%)	1 (1%)	2 (1%)	0 (0%)	13 (9%)
캄보디아	4 (3%)	1 (1%)	0 (0%)	0 (0%)	0 (0%)	0 (0%)	5 (3%)
몽골	0 (0%)	0 (0%)	1 (1%)	1 (1%)	1 (1%)	0 (0%)	3 (2%)
우즈베키스탄	0 (0%)	0 (0%)	0 (0%)	2 (1%)	0 (0%)	0 (0%)	2 (1%)
대만	0 (0%)	0 (0%)	0 (0%)	0 (0%)	0 (0%)	1 (1%)	1 (1%)
계	17 (11%)	19 (13%)	56 (37%)	22 (15%)	26 (17%)	10 (7%)	150 (100%)

○ 출신국가별 한국 국적 취득 여부를 보면, 전체 응답자 150명 중 51명이 국적을 취득하였으며, 99명은 취득하지 않거나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과 필리핀 출신의 경우, 취득 여부가 2명당 1명꼴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베트남과 네팔의 결혼이민자는 각각 60%, 85%가 국적을 미취득하고 있다고 응답함
- 반면 일본 국적의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비율이 응답자의 95%로 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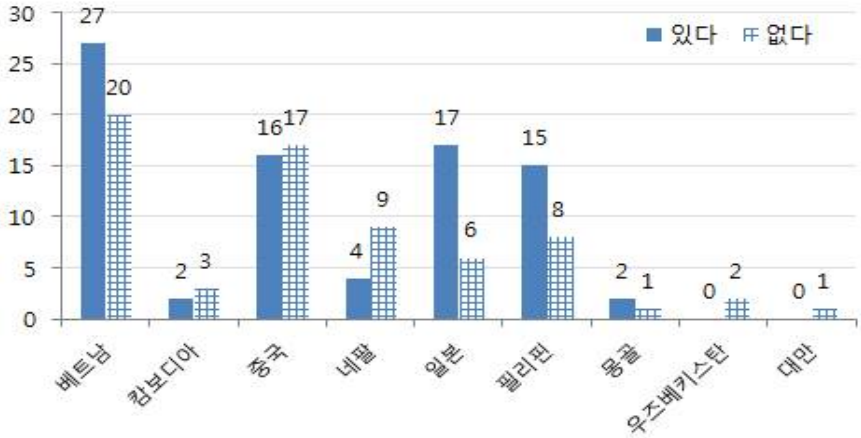
<그림 13> 출신국가별 한국 국적 취득 여부



○ 출신국가별 일자리 참여 여부를 보면 대부분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음

- 그러나 캄보디아와 중국은 경제활동 참여 여부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네팔 출신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응답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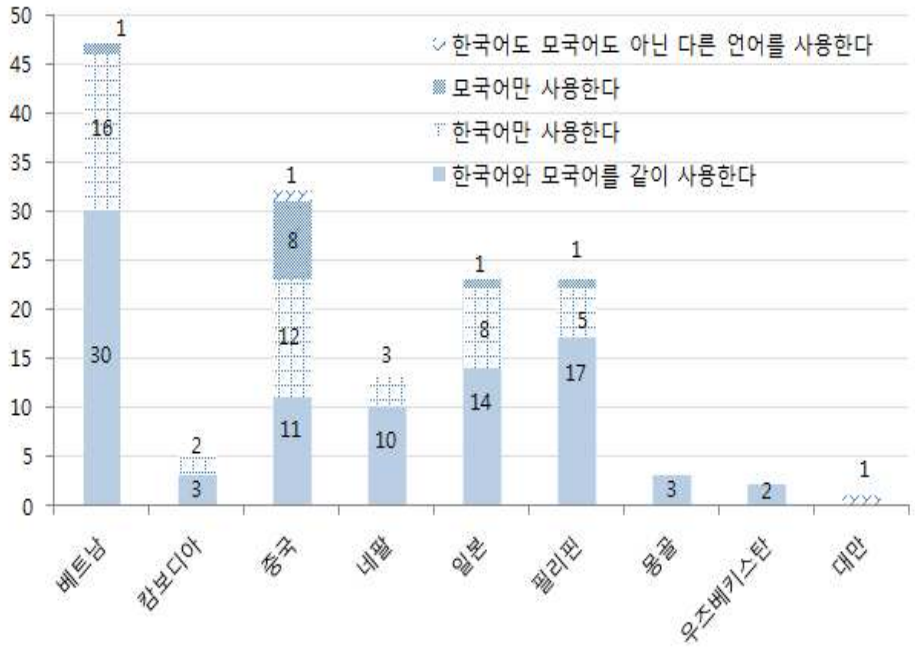
<그림14> 출신국가별 경제활동 참여 여부



○ 응답자 출신국가와 일상적 사용언어 관계는 대부분이 한국어와 모국어를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전반적으로 출신국별로 모국어 사용과 한국어 사용 등의 비중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음
- 그러나 중국 출신의 경우 한국어만 사용하는 응답자가 모국어를 사용하는 응답자와 같게 나타났으며, 그 원인은 한국계(중국)를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음

<그림 15> 가구소득과 응답자의 일상 언어



○ 응답자 출신국가와 한국어 대화 이해 정도를 살펴보면 대부분 이해한다고 응답함

- 이해 정도가 높은 이유로 한국 거주 기간이 평균 5년이 넘는 것을 감안한다면, 한국생활에서 한국어를 듣고 이해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베트남 출신의 응답자는 절반 정도를 이해한다는 응답자가 11명이 있었으며, 중국 출신 응답자의 경우 32명 중 5명, 대만 출신 응답자 1명 중 1명은 여전히 한국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응답함
- 반면 대만 출신 응답자를 보면 평소 사용언어가 모국어도 한국어도 아닌 제3의 언어를 사용하고, 가족 간 소통 언어 역시 제3언어인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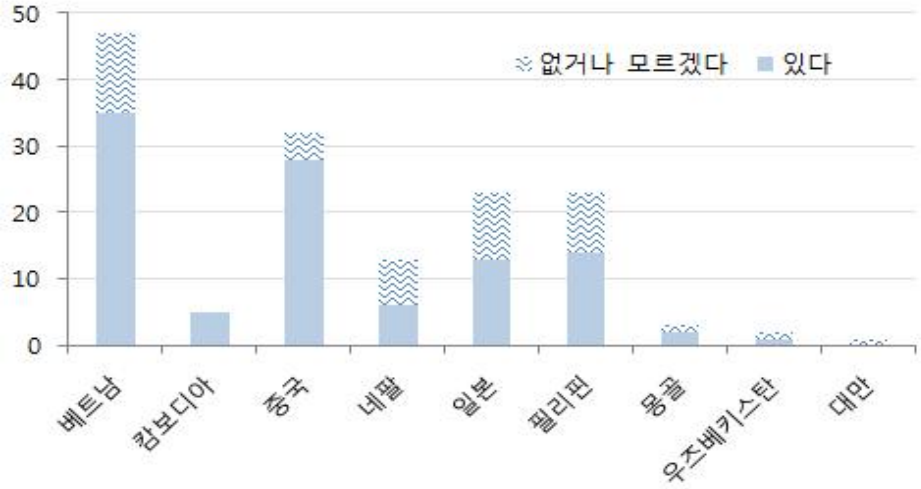
<표 57> 응답자 출신국가와 한국어 대화 이해 정도

	①	②	③	④	⑤	계
베트남	13 (9%)	21 (14%)	11 (7%)	2 (1%)	0 (0%)	47 (32%)
캄보디아	1 (1%)	3 (2%)	1 (1%)	0 (0%)	0 (0%)	5 (3%)
중국	21 (14%)	3 (2%)	1 (1%)	2 (1%)	5 (3%)	32 (21%)
네팔	8 (5%)	3 (2%)	2 (1%)	0 (0%)	0 (0%)	13 (9%)
일본	16 (11%)	6 (4%)	1 (1%)	0 (0%)	0 (0%)	23 (15%)
필리핀	9 (6%)	9 (6%)	5 (3%)	0 (0%)	0 (0%)	23 (15%)
몽골	1 (1%)	1 (1%)	0 (0%)	1 (1%)	0 (0%)	3 (2%)
우즈베키스탄	0 (0%)	2 (1%)	0 (0%)	0 (0%)	0 (0%)	2 (1%)
대만	0 (0%)	0 (0%)	0 (0%)	0 (0%)	1 (1%)	1 (1%)
계	69 (46%)	48 (32%)	21 (14%)	5 (3%)	6 (4%)	149 (100%)

주) 각 번호는 다음과 같음
① 거의 다 이해한다
② 못 알아듣는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 이해한다
③ 반은 이해하고, 반은 모르겠다
④ 조금 알아듣고 대부분 이해하지 못한다
⑤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 출신국가와 자녀 교육계획 유무를 살펴보면 대부분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일본, 네팔, 필리핀 출신 응답자의 경우 계획이 없거나 모른다고 응답함

<그림 16> 출신국가와 자녀의 교육계획 여부



○ 출신국가별로 교육계획 여부에 응답한 내용을 보면 성적위주 입시전문학원 또는 영어 등의 외국어 학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예체능 전문학원과 한국어 학원 순으로 나타남

- 이러한 원인은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사교육 영향으로 볼 수 있음
- 반면, 한국어 학원을 선호한 이유는 본인의 경험에 의한 한국어 학습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기타의견으로 인성교육이 중요한 고려대상으로 기술한 응답자도 있어 가정에서의 교육지원의 필요성을 응답한 경우도 있음

<표 58> 출신국가별 교육계획 주 고려 대상

	성적위주 입시전문 학원	예체능 전문학원	한국어 학원	개인과외	영어등의 외국어 학원	기타	계
베트남	10 (10%)	7 (7%)	10 (10%)	0 (0%)	7 (7%)	1 (1%)	35 (34%)
캄보디아	2 (2%)	1 (1%)	0 (0%)	0 (0%)	2 (2%)	0 (0%)	5 (5%)
중국	5 (5%)	6 (6%)	3 (3%)	2 (2%)	9 (9%)	3 (3%)	28 (27%)
네팔	3 (3%)	0 (0%)	3 (3%)	0 (0%)	0 (0%)	0 (0%)	6 (6%)
일본	4 (4%)	1 (1%)	0 (0%)	1 (1%)	3 (3%)	4 (4%)	13 (13%)
필리핀	5 (5%)	2 (2%)	2 (2%)	2 (2%)	3 (3%)	0 (0%)	14 (13%)
몽골	0 (0%)	2 (2%)	0 (0%)	0 (0%)	0 (0%)	0 (0%)	2 (2%)
우즈베키스탄	0 (0%)	0 (0%)	0 (0%)	0 (0%)	1 (1%)	0 (0%)	1 (1%)
계	29 (28%)	19 (18%)	18 (17%)	5 (5%)	25 (24%)	8 (8%)	104 (100%)

○ 응답자 출신국가별 모국어 자녀교육 계획은 국가와 상관없이 대부분 꼭 배우게 하고 싶다 또는 가능하면 배우게 하고 싶다고 응답함

- 배우게 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은 학교공부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한국어만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응답도 있음

<표 59> 출신국가와 모국어 자녀교육 계획

	꼭 배우게 하고싶다	가능하면 배우게 하고 싶다	반반이다	배우게 하고 싶지 않다	계
베트남	17 **(11%)**	23 (16%)	5 (3%)	1 (1%)	46 (31%)
캄보디아	1 (1%)	4 (3%)	0 (0%)	0 (0%)	5 (3%)
중국	27 **(18%)**	4 (3%)	1 (1%)	0 (0%)	32 (22%)
네팔	2 (1%)	10 (7%)	1 (1%)	0 (0%)	13 (9%)
일본	14 (9%)	7 (5%)	2 (1%)	0 (0%)	23 (16%)
필리핀	11 (7%)	9 (6%)	3 (2%)	0 (0%)	23 (16%)
몽골	1 (1%)	2 (1%)	0 (0%)	0 (0%)	3 (2%)
우즈베키스탄	2 (1%)	0 (0%)	0 (0%)	0 (0%)	2 (1%)
대만	1 (1%)	0 (0%)	0 (0%)	0 (0%)	1 (1%)
계	76 (51%)	59 (40%)	12 (8%)	1 (1%)	148 (100%)

○ 모국어를 자녀에게 교육하고 싶은 이유로 두 나라의 문화나 언어를 잘 습득하는 것 이외 본국의 가족들과 의사소통을 위해서라고 응답함

- 중국 출신 응답자의 경우 부모의 모어를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

<표 60> 출신국가와 모국어 교육의 이유

	①	②	③	④	⑤	⑥	계
베트남	8 (5%)	5 (3%)	20 (14%)	11 (7%)	1 (1%)	0 (0%)	45 (31%)
캄보디아	1 (1%)	0 (0%)	0 (0%)	4 (3%)	0 (0%)	0 (0%)	5 (3%)
중국	17 (12%)	0 (0%)	10 (7%)	3 (2%)	2 (1%)	0 (0%)	32 (22%)
네팔	0 (0%)	0 (0%)	3 (2%)	9 (6%)	1 (1%)	0 (0%)	13 (9%)
일본	7 (5%)	0 (0%)	9 (6%)	3 (2%)	3 (2%)	1 (1%)	23 (16%)
필리핀	9 (6%)	1 (1%)	7 (5%)	5 (3%)	1 (1%)	0 (0%)	23 (16%)
몽골	2 (1%)	0 (0%)	0 (0%)	0 (0%)	1 (1%)	0 (0%)	3 (2%)
우즈베키스탄	2 (1%)	0 (0%)	0 (0%)	0 (0%)	0 (0%)	0 (0%)	2 (1%)
대만	0 (0%)	1 (1%)	0 (0%)	0 (0%)	0 (0%)	0 (0%)	1 (1%)
계	46 (31%)	7 (5%)	49 (33%)	35 (24%)	9 (6%)	1 (1%)	147 (100%)

주. 각 문항은 다음을 나타냄

①자녀가 부모의 모어를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②자녀와 정서적 공감을 위해 필요하다

③두 나라의 문화나 말을 잘 하게 하고 싶어서

④나의 부모, 형제 등과 의사소통을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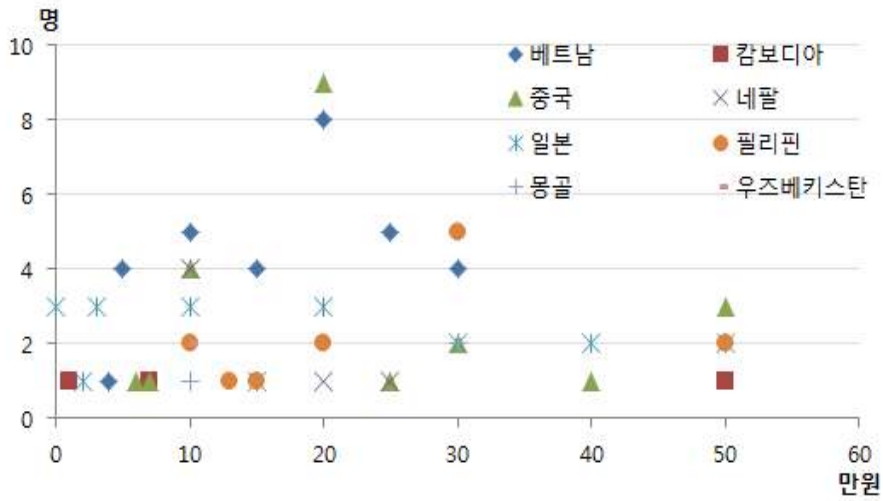
⑤진학과 취업에 유리하기 때문에

⑥기타

○ 응답자의 출신국가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 적정 희망금액을 조사 분석한 결과 다수의 응답자가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를 적정 비용으로 응답함

- 그러나 응답자가 한국교육제도에 대한 인지와 미취학아동이 첫째아인 점을 감안한다면 응답한 사교육비는 국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반면 한국과 비교하여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의 교육인프라를 가진 일본 출신 응답자는 오히려 사교육비 지출이 다른 출신국가 응답자들에 비해 낮게 나타남에 따라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7> 출신국가별 희망 사교육비 지출



IV. 결론 및 정책 제언

1. 조사결과

○ 제주특별자치도내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2,423명 가운데 150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하였음

- 설문조사 대상 가구는 3세 이상이거나 어린이집 재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음
- 전체 결혼이민자 가운데 6.2%에 해당되는 비율이나, 다문화가족 초기입국자는 자녀 출산 등의 확대가족을 구성하지 못함에 따라 실제 대상자별 응답가구의 비중은 확대될 수 있음

○ 응답자의 거주지를 보면 제주시 응답자가 71%, 서귀포시 응답자가 29%로 나타났으며,

- 출신국가는 베트남 출신 다문화가족 여성이 31%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고, 다음으로 중국, 일본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 응답자 10명 가운데 4.5명은 본인의 한국어 능력에 대하여 읽기, 쓰기, 통역 등 10개 부문에 대하여 잘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음

- 그러나 설문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베트남어, 네팔어, 중국어로 각각 번역을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문에 대한 문항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부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응답자의 한국어 수준은 입국 시기에 따라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확인될 수 있음

○ 자녀의 언어발달 수준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사교육비 지출 규모를 20만원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음

2. 정책제언

○ 지금까지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정책적 지원을 위한 기초 연구를 통해 제주도내 조사 응답자들의 경우 자녀가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들의 비율이 높지 않은 결과 다문화 자녀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특히,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의 경우 출산 이후 자녀의 어린이집 등원을 기점으로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서 조사 대상자와 조사 과정이 상대적으로 한계를 겪음에 따라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의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시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한 욕구 파악을 위하여 다양한 접근이 필요함

○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책에 대한 체감도, 효과성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다문화 지원 정책의 경우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 체계의 개편이 요구됨

○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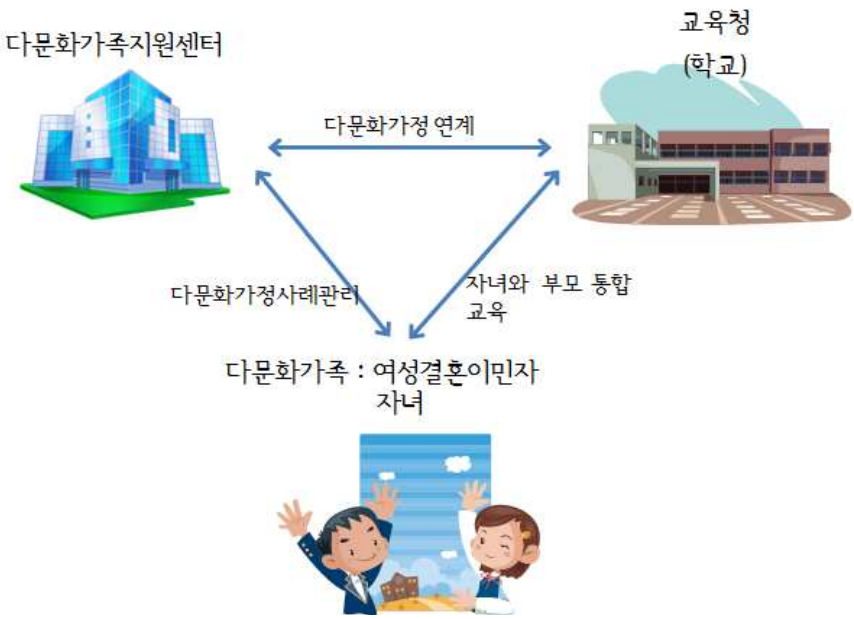
1) 다문화가족과 자녀를 위한 통합 교육

○ 응답자 가운데 본인의 모국어를 자녀에게 학습하기를 희망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조사 과정에서 모국어에 대한 선호 비중이 결혼이민자 출신국가별로 상이하게 응답이 이루어졌음

- 현재 다문화 자녀의 연령이 저연령의 비중이 높은 실정으로 향후 결혼이민자 여성의 한국어 습득 정도에 따라 자녀와 통합교육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통합교육에 있어 교육청·학교내에서 교육 과정을 편성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중심의 사례관리를 통해 통합교육의 관리와 중도이탈을 예방할 수 있음

<그림 18> 다문화가족 교육 지원체계



2) 다문화가족 자녀와 함께 하는 가족교실 운영

○ 다문화 교육시 가장 중요한 점은 배우자에 대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 강화를 위하여 가족 단위의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우선 다문화 조사 결과를 보면 결혼이민자·귀화자가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경로로 2009년은 결혼중개업체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2012년은 친구·동료의 소개가 29.4%로 가장 높게 나타남에 따라 다문화가족 형성이 이미 정착한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소개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다문화가정의 결혼과정의 변화를 반영하여 배우자간 소통, 자녀와 배우자와의 소통, 가족문화 습득 등을 위하여 배우자와 함께 하는 배우자 교실을 확대, 부모와 함께하는 다문화가족 교실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기존, 배우자 교실의 부부대화법 등의 8회기 교육을 가족 단위로 확장시켜 운영할 필요가 있음

3) 초기입국자 중심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 제주도의 경우 지리적 접근성의 한계로 다문화 교실의 이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므로 다문화교실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다문화 교실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다문화교실의 경우 상설 운영이 필요하며, 다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서 다문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도서관 등의 프로그램실을 확대 다문화교육 및 다문화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초기 입국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을 주로 하고 있으나, 자녀 출산과 양육 등 초기 입국자와 달리 귀화 등 한국 거주 기간이 5년 이상 등 기간이 증가할수록 프로그램 참여에 한계가 있음

-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취업연계, 사회참여, 교육문제 등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여야 함

4) 제주지역 중도입국 자녀 및 학습부진 다문화자녀를 위한 무지개 교실 운영

○ 다문화 자녀 또는 중도입국 자녀의 경우 학습부진, 탈학교 등 장기적으로 학습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문화 자녀를 위한 특별반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5) 다문화가족 사례 관리 확대

○ 다문화 자녀에 대한 프로그램이 활발한 안산지역의 경우 구단위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통합사례관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자녀의 학습권 등을 보호하고 있음

-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지원을 통한 가족해체, 탈학교, 학습부진 등을 예방할 수 있음

6) 다문화가족 정책 패러다임 변화 : 지원에서 사회참여로 전환

○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 패러다임은 다문화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초점을 두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기존 지원의 소극적인 정책 대상으로 남아있을 경우 다문화가족 자녀의 사회에 있어 부정적인 편견과 특수성을 심화시킬 수 있음

○ 결국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을 확대하고, 자녀의 사회참여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지원의 소극적인 정책 패러다임을 적극적인 사회참여로 연계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제주지역은 2010년 다문화 실태 조사 이후 지역 차원의 다문화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점은 정책 대상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욕구와 실태 파악을 통해 체감 정책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다문화 실태 조사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주 지역의 경우 다문화가족의 비중 등을 이유로 전국 실태조사에서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계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으로 2007년 1회 다문화 실태조사와 2009년 실태조사를 연계하여 변화된 다문화가족 실태를 파악,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함

참고문헌

안전행정부,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각년도
여성가족부(2012), 2012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
_____(2013), 2013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
여성가족부·관계부처 합동,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전기택 외(2013),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제주특별자치도(2013),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현황
통계청

ABSTRACT

Jung yungtae

Latterly, increased number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s leading more research on that.

Generally, research on multi-cultural has marital process of marriage immigrants', marriage and family life, relationship with spouse. However, now we need focus on the part of social unification for children of them.

Recently, children under the age of six from the multi-cultural families in Jeju are 69.8%. Number of children received schooling are 166 children at the junior school , 105 at the high school, 440 at the elementary school.

This research is for using background paper for policy making. Accordingly, research has through the survey about skills of Korean of parents, any difficulties of rearing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Jeju who has children aged over three.

The survey respondents are 150 people where living in Jeju city and Seogwipo city, and most respondents are from Viet-nam, China, Japan. Where at the question of skills of Korean, 4.5 per 10 people answered their has good skills of Korean. Moreover, respondents are aware high level of their children's linguistic skills. On the other hand, they can spent two hundred thousand won per month for private education in the future, and they hope public education expands.

In conclusion, we emphasize the necessity of education unification of parents and children at the multi-cultural family, expand of language

course, strengthen of multi-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classroom for immigrated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learning under-achievement children, multi-cultural family case management with periodic investigation.

key-words: multi-cultural family, multi-cultural,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multi-cultural education

부록 1. 설문조사지(한국어)

제주 지역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정책 실태 조사표(한국어)

ID	-				

안녕하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은 제주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각종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 등 지역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개발하는 연구기관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증가와 함께 자녀에 대한 지원 정책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함께 자녀 지원 현실을 파악하여 향후 제주지역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 내용은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설문 내용은 다문화가족 및 자녀 관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적인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의견은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 자녀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무기명 응답으로 응답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응답의 결과 역시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응답하신 한 문항, 한 문항은 연구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빠짐없이 모든 항목에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3년 10월

제주발전연구원 원장 공 영 민

❒ 본 조사와 관련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제주발전연구원 전문연구원 정영태

연 락 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연로 253 (690-162)

(☎)064-726-6210 (Fax)064-751-2168

❒ 응답자 공통사항

거주 지역	① 제주시(_____읍면동) ② 서귀포시(_____읍면동)
연령	① 어머니/모 (_____세) ② 아버지/부(_____세)
학력	어머니/모 : ① 초등학교 졸 ② 중학교졸 ③ 고등학교졸 ④ 전문대졸 ⑤ 대졸 ⑥ 대학원졸 ⑦ 무학
	아부지/부 : ① 초등학교졸 ② 중학교졸 ③ 고등학교졸 ④ 전문대졸 ⑤ 대졸 ⑥ 대학원졸 ⑦ 무학
가구 월평균 소득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 미만 ③ 200~300만원 미만 ④ 300~400만원 미만 ⑤ 400~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 이상 ⑦ 소득없음

Ⅰ. 인구통계부문

1. 다음 응답에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생활 만족도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⑥ 잘모르겠다					
함께 살고 있는 가족	① 부부+ 자녀 ② 시부모+부부+자녀 ③부부+자녀+남편형제 ④ 처부모+부부+자녀 ⑤ 부부+자녀+아내형제 ⑥ 기타( )					
자녀	구분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넷째 자녀	다섯째이상
	성별	① 남 ② 여	① 남 ② 여	① 남 ② 여	① 남 ② 여	① 남 ② 여
	나이	세	세	세	세	세

2. 귀하께서는 언제 결혼하셨습니까? _____년

3. 귀하께서는 한국국적을 취득하셨습니까?

① 취득 (☞ 3-1번 문항으로)　　② 미취득 (☞ 3-2번 문항으로)

3-1. 귀하께서는 한국국적을 언제 취득하셨습니까? _____년

3-2. 귀하께서는 한국국적을 미취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귀화허가시기 미도래　② 절차 및 정보를 몰라서
③ 서류 갖추기가 어려워서　④ 비용이 많이 들어서　⑤ 기타 (　)

4. 같이 사는 가족 구성원 중 장애를 가진 구성원 있습니까?

① 있다 (☞ 4-1번 문항으로)　② 없다(☞ 5번 문항으로)　③ 모르겠다(☞ 5번 문항으로)

4-1. 장애가 있는 가족과의 관계 및 장애 유형과 등급은 무엇입니까?

- 본인과의 관계 : _____
- 장애 유형 및 등급 : _____

5. 미취학 자녀가 있다면 현재 누가 돌보고 있습니까?

① 어린이집/ 놀이방　② 유치원　③ 학원　④ 집에 있음　⑤ 기타 (　)

6. 취학 자녀는 방과후에 누가 돌보고 있습니까?

① 방과후교실　② 학원　③ 자녀혼자　④ 시부모/처가부모　⑤ 기타 (　)

Ⅱ. 경제활동부문

7. 귀하께서는 현재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계십니까?

① 그렇다 (☞ 7-1번 문항으로)　② 아니다 (☞ 7-3번 문항으로)

7-1. 귀하께서는 현재 어떤 근무형태입니까?

① 정규직 (☞ 7-2번 문항으로)
② 비정규직/계약직 (☞ 7-2번 문항으로)
③ 아르바이트 (☞ 7-2번 문항으로)

7-2. 귀하께서는 현재 어떤 직종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단순노무 종사자

7-3. 귀하께서는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일자리가 없어서 ② 출산·육아 등 가족 돌봄으로 ③ 보육 및 자녀교육으로
④ 가족의 반대 ⑤ 업무능력이 없어서 ⑥ 기타( )

8. 귀하의 배우자는 현재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계십니까?

① 그렇다 (☞ 8-1번 문항으로) **② 아니다 (☞ 8-3번 문항으로)**

8-1. 귀하의 배우자는 현재 어떤 근무형태입니까?

① 정규직 (☞ 8-2번 문항으로)
② 비정규직/계약직 (☞ 8-2번 문항으로)
③ 아르바이트 (☞ 8-2번 문항으로)

8-2. 귀하의 배우자는 현재 어떤 직종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단순노무 종사자

8-3. 귀하의 배우자가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일자리가 없어서 ② 출산·육아 등 가족 돌봄으로 ③ 보육 및 자녀교육으로
④ 가족의 반대 ⑤ 업무능력이 없어서 ⑥ 기타( )

Ⅲ. 언어 부문

9. 다음은 귀하의 한국어 능력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해당 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항목	매우 못한다 ←				→ 매우 잘한다
한국어로 쓴 메모, 안내문을 읽고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한국어로 쓴 편지, 설명문을 읽고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한국어로 쓴 신문, 책을 읽고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한국어로 간단한 인사를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한국어로 일상 대화를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한국어로 일반적인 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한국어로 연설, 토론, 통역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간단한 한국어 문장을 듣고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한국어로 진행되는 일반적인 대화를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한국어 뉴스를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귀하께서는 한국어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10-1번 문항으로) ② 없다 (☞ 10-3번 문항으로)

10-1. 교육을 받은 기관은 어디입니까?

① 주민자치센터 ②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③ 종합사회복지관 ④ 결혼중개업소
⑤ 일상생활 ⑥ 본국에서 혼자 ⑦ 기타( )

10-2. 귀하께서 한국어 교육을 받은 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년 개월

10-3. 귀하께서 한국어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어디서 하는지 몰라서 ② 자녀를 맡길 곳이 마땅하지 않아서 ③ 거리가 멀어서
④ 가족의 반대 ⑤ 교육/강의 내용이 어려워서 ⑥ 시간이 맞지 않아서
⑦ 기타( )

11. 귀하께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한국어와 모국어를 같이 사용한다 ② 한국어만 사용한다
③ 모국어만 사용한다 ④ 한국어도 모국어도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

12. 귀하께서는 가족과 대화시간은 하루에 어느 정도입니까?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 2시간 미만 ③ 2시간 - 3시간 미만
④ 3시간 - 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

13. 귀하께서 가족 가운데 대화를 가장 많이 하는 구성원은 누구입니까?

① 배우자 ② 첫째자녀 ③ 둘째자녀 ④ 시부모
⑤ 남편형제 ⑥ 처가부모 ⑦ 아내형제 ⑧ 기타( )

14. 귀하께서는 가족과 한국어로 대화할 때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까?

① 거의 다 이해한다 ② 못 알아듣는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 이해한다
③ 반쯤 이해하고, 반쯤 짐작한다 ④ 조금 알아듣지만,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
⑤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15. 귀하께서 자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 의사소통이 어려울 때 주로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①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 없음 ② 배우자 ③ 배우자의 부모
④ 이웃 ⑤ 행정기관(다문화지원센터 등) ⑥ 기타 ( )

16. 귀하의 자녀들은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① 자녀 1명만 있음 ② 한국어 ③ 응답자의 모국어
④ 한국어와 응답자의 모국어 둘다 ⑤ 기타 ( )

Ⅳ. 부모와 자녀 교육 부문

17. 자녀와 함께하는 평균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1)아빠	①	②	③	④	⑤
2)엄마	①	②	③	④	⑤

18. 귀하의 가족간에 가장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① 아빠-엄마 ② 아빠-자녀 ③ 엄마-자녀 ④ 자녀-자녀 ⑤ 시부모-며느리
⑥ 처부모-사위 ⑦ 시부모-자녀 ⑧ 처부모-자녀 ⑨ 남편형제-본인 ⑩ 처형제-남편
⑪ 기타( )

19. 만약 귀하와 자녀 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① 갈등이 전혀 없음 ② 배우자 ③ 배우자의 부모
④ 이웃 ⑤ 행정기관(다문화지원센터 등) ⑥ 기타 ( )

20. 귀하는 자녀에 대하여 향후 교육과 관련 계획이 있습니까?

① 있다 (☞ 20-1번 문항으로) ② 없다 (☞ 20-2번 문항으로)
③ 잘모르겠다 (☞ 20-2번 문항으로)

20-1. 향후 자녀교육에 있어 가장 고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성적위주의 입시전문학원 ② 예체능 전문학원 ③ 한국어학원
④ 개인과외 ⑤ 영어 등 외국어 학원 ⑥ 기타 ( )

20-2. 향후 자녀교육계획이 없거나 잘 모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교육제도를 모른다 ② 교육기관을 모른다 ③ 금전적인 문제
④ 학교교육을 신뢰한다 ⑤ 교육 필요성을 모르겠다
⑥ 다른 가족들이 알아서 한다 ⑦ 기타 ( )

21. 귀하께서는 보육 및 교육지원 제도를 알고 있습니까?

① 알고 있다(☞ 21-1번 문항으로)　② 잘 모른다(☞ 22번 문항으로)

21-1. 귀하께서 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나 정보를 알게 된 경로는 어디입니까?
(한 가지만 응답해주세요)

① 주민자치센터　② 학교　③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④ 복지관　⑤ 신문, 방송,인터넷 등　⑥ 주변 지인들로부터
⑦ 기타(　　)

22. 귀하께서는 자녀가 본인의 모국어를 배우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꼭 배우게 하고 싶다(☞22-1번 문항으로)　② 될 수 있으면 배우게 하고 싶다(☞22-1번 문항으로)
③ 될 수 있으면 배우게 하고 싶다(☞22-1번문항으로) ④ 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22-2번문항으로)
⑤ 배우게 하고 싶지 않다 (☞ 22-2번 문항으로) ⑥ 잘 모르겠다(☞ 22-2번 문항으로)

22-1. 귀하께서 자녀에게 모국어를 가르치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자녀가 부모의 모어를 배우는 것은 필요하다　② 자녀와 정서적 공감을 위해 필요하다
③ 두 나라의 문화나 말을 잘 하게 하고 싶어서　④ 나의 부모, 형제, 친척들과 의사소통을 위해
⑤ 진학과 취업에 유리하기 때문에　⑥ 기타 (　　)

22-2. 귀하의 자녀가 모국어를 가르치는데 있어 꺼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다른 가족의 반대　② 학교 공부에 지장　③ 한국어 이해에 방해
④ 가르칠 시간의 부족　⑤ 응답자 모국어 관련 기관/자료 부족 ⑥ 친구들의 따돌림
⑦ 전혀 어려움이 없음　⑧ 기타 (　　)

23. 귀하는 현재 미취학 자녀가 있습니까?

① 있다 (☞ 23-1번 문항으로)　② 없다 (☞ 23-2번 문항으로)

23-1. 미취학자녀는 어떻게 돌보고 있습니까?
(가장 나이어린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십시오)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학원　④ 응답자 본인
⑤ 배우자 부모　⑥ 자녀혼자 있음　⑦ 기타 (　　)

23-2. 취학자녀는 어떻게 돌보고 있습니까?

(가장 나이어린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십시오)

① 학원 ② 자녀혼자/자녀끼리 ③ 방과후학교 ④ 지역아동센터
⑤ 시부모 ⑥ 처부모 ⑦ 남편형제 ⑧ 아내형제 ⑨ 기타( )

24. 귀하의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어려움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24-1번 문항으로) ② 없다 (☞25번 문항으로)

24-1. 자녀 학교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① 배우자 ② 응답자 본인 ③ 배우자의 부모 ④ 배우자의 형제
⑤ 자녀의 형제 ⑥ 자녀혼자 있음 ⑦ 기타 ( )

25. 현재 귀하의 자녀의 언어발달 수준에 대하여 다음 문항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항목	매우 못한다 ← → 매우 잘한다				
또래아이들에 비하여 한국어를 잘 못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한국어로 된 책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한국어로 토론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한국어 문장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선생님이나 또래아이들과의 대화를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한국어로 발표를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6. 귀하의 자녀의 학원비 등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평균 어느 정도 입니까? __만원

26-1. 귀하께서 자녀에게 시키고 있는 방과후 교육/사교육을 모두 적어주십시오

예) 영어학원, 방과후교실(미술), 국어학습지, 영어학습지 등

---

27. 귀하는 사교육비로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_____만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1. 설문조사지(중국어)

济洲地区多元文化家庭子女支援政策现状调查表(中国语)

ID	-				

您好?
济洲发展研究院向政府提出济洲的未来方向，解决现存问题的解决方案，是为济洲的发展研究开发全方位政策的研究机关。

随着多元文化家庭的增加，对多元文化家庭子女的支援政策的要求也随之提高。我院实施本次调查，目的在于了解居住在济洲区域多元文化家庭和其子女的支援现状，以便研究今后济洲区域多元文化家庭子女的支援政策。
本次调查表的目的是要识别多元文化家庭及相关儿童的状态，为多元文化家庭政策提供实际性的支援，因此内容以最基本的问题构成。
您的宝贵意见将会在为树立济洲特别自治道多元文化家庭及子女支援政策的珍贵资料。
本调查表由不记名方试进行，保证您的签卷不对外泄露，而且只用于研究的资料，绝不用于其他目的。您的回答将左右研究的结果，所以请您如实回答。
谢谢您的合作。

2013年 10月

济洲发展研究院 院长 孔 永 敏

❒ 如有与本调查有关的疑问，请与下面的电话联系。

負責人 : 济洲发展研究院 专门研究员 郑颖台
地 址: 济洲特别自治道 济洲市 Ayeon路253 邮编 690-162
电话 064-726-6210 傳眞 064-751-2168

❒ 被调查者的 共同事项

国籍	
居住地域	① 济洲市 （_____邑面洞） ② 西归铺市（_____邑面洞）
年龄	① 妈妈/母（_____세 岁） ② 爸爸/父(_____세岁)
学历	妈妈/母 ：① 小学毕业 ② 中学毕业 ③ 高中毕业 ④ 大专毕业 ⑤ 本科毕业 ⑥ 研究生毕业 ⑦ 无学历
	爸爸/父 ：① 小学毕业 ② 中学毕业 ③ 高中毕业 ④ 大专毕业 ⑤ 本科毕业 ⑥ 研究生毕业 ⑦ 无学历
家庭月平均收入	① 未满100万 ②100万~200万以下 ③200万 ~300万以下 ④ 300万 ~400万以下 ⑤400万 ~500万以下 ⑥ 500万以上 ⑦ 没有收入

Ⅰ. 人口统计部分

1. 请在下列问卷符合项目上划钩。

生活满足度	① 很满足 ② 满足 ③ 一般 ④ 不满足 ⑤ 很不满足 ⑥ 不知道					
生活在一起的家族	①夫妻+子女 ②公婆 + 夫妻 + 子女 ③ 夫妻 + 子女 + 丈夫兄妹 ④妻子的父母+夫妻+子女 ⑤夫妻+子女+妻子的兄妹 ⑥ 其他					
子女	区分	老大	老二	老三	老四	老五以上
	性别	①男②女	①男②女	①男②女	①男②女	①男②女
	年龄	岁	岁	岁	岁	岁

2. 您什么时候结婚的? _____ 年

3. 您获得韩国国籍吗?

① 获得 (☞ 答3-1项 提问) ② 未获得 (☞ 答 3-2项 提问)

3-1. 您是什么时候获得韩国国籍的? _____ 年

3-2. 您未获得韩国国籍的理由是什么?

① 未到时候 ② 不知道程序或情报

③ 准备材料难 ④ 费用太多 ⑤ 其他( )

4. 庭成员中有残疾人吗?

① 有있다 (☞ 4-1번 문항으로) ② 없다(☞ 5번 문항으로)

③ 모르겠다(☞ 5번 문항으로) 没有(☞ 答 第5行 提问)

有 (☞ 答 第4-1行 提问) 不知道 (☞ 答 第5行 提问)

4-1. 您和残疾人家属的关系以及残疾类型和等级是什么?

- 和您之间的关系 : _____
- 残疾类型或等级 : _____

5. 如有未入学子女, 是谁在照顾?

① 托儿所 ② 儿园 ③ 学院 / 补习班 ④ 在家

⑤ 其他 ( )

6. 上学的子女放学后, 是谁来照顾?

① 课后补习班 ② 学院 / 补习班 ③ 子女独自在家

④ 公婆 / 岳父岳母 ⑤ 其他( )

Ⅱ. 经济活动部分

7. 您现在参加经济活动吗?

① 是 (☞ 答 7-1行 提问) ② 不是 (☞ 答 7-3行 提问)

7-1. 您的工作类型是?

① 正规职 (☞ 答 7-2行 提问)

② 非正规职 / 合同职 (☞ 答 7-2行 提问)

③ 计时工 (☞ 答 7-2行 提问)

7-2. 您目前从事什么行业?

① 管理行业 ② 专家及相关从事行业 ③ 办公行业

④ 服务行业 ⑤ 销售行业 ⑥ 农林鱼行业

⑦ 手工艺及有关行业 ⑧ 设备·机器操作及装配行业

⑨ 单纯劳动行业

7-3. 您目前不搞经济活动的理由是?

① 因没有工作 ② 因生儿育女, 顾家 ③ 因保育及子女教育

④ 因家族反对 ⑤ 因没有业务能力 ⑥ 其他

8. 您的配偶目前搞经济活动吗?

① 是 (☞ 答 8-1行 提问) ② 不是(☞ 答 8-3行 提问)

8-1. 您配偶的工作类型是?

① 正规职 (☞ 答 8-2行 提问)

② 非正规职 / 合同职 (☞ 答 8-2行 提问)

③ 计时工 (☞ 答 8-2行 提问)

④ 个体营业

8-2. 您的配偶目前从事什么行业?

① 管理行业 ② 专家及相关从事行业 ③ 办公行业

④ 服务行业 ⑤ 销售行业 ⑥ 农林鱼行业

⑦ 手工艺及有关行业 ⑧ 设备·机器操作及装配行业

⑨ 单纯劳动行业

8-3. 您的配偶目前不搞经济活动的理由是?

① 因没有工作 ② 因生儿育女, 顾家 ③ 因保育及子女教育

④ 因家族反对 ⑤ 因没有业务能力 ⑥ 其他 ( )

Ⅲ. 语言部分

9. 下列是关于您的韩国能力有关的问题。请在符合您的问项上打钩。

项 目	很不好 ←→ 很好				
我能念，并能理解用韩语写的记录和指南	①	②	③	④	⑤
我能念，并能理解用韩语写的书信和说明书	①	②	③	④	⑤
我能念，并能理解用韩文报纸和书	①	②	③	④	⑤
我能用韩语打简单的招呼	①	②	③	④	⑤
我能用韩语谈日常用语	①	②	③	④	⑤
我能用韩语说明一般的事项	①	②	③	④	⑤
我能专业地用韩语进行演讲，讨论，和翻译	①	②	③	④	⑤
我能听懂，并能理解简单的韩语文章	①	②	③	④	⑤
我能理解用韩语进行的一般对话	①	②	③	④	⑤
我能理解韩语新闻	①	②	③	④	⑤

10. 您接受过韩国语教育吗?

① 有 (☞ 答 10-1行 提问) ② 没有(☞ 答 10-3行 提问)

10-1. 您受教育的机关是?

① 社区中心 ② 多元文化家族支援中心 ③ 社会福利中心

④ 结婚介绍所 ⑤ 日常生活 ⑥ 在本国自学 ⑦ 其他( )

10-2. 您接受韩国语教育的期间是? 年 个月

10-3. 您不参与韩国语教育的理由是?

① 因不知道在哪儿可以学 ② 因没有人看孩子 ③ 因离家太远

④ 因家属的反对 ⑤ 因教育内容太难理解

⑥ 时间不符合 ⑦ 其他 ( )

11. 您平时使用的语言是?

① 韩国语和母国语都使用　② 只用韩国语

③ 只用母国语　④ 韩国语和母国语以外的语言外的语言

12. 您和家人一天谈话的时间是?

① 不到一个小时　② 一个小时 ~ 二个小时　③ 二个小时 ~ 三个小时

④ 三个小时 ~ 四个小时　⑤ 四个小时 以上

13. 家属中和您谈话最多的人是谁?

① 配偶　② 长子 / 长女　③ 次子 / 次女　④ 公公婆婆

⑤ 丈夫的兄妹　⑥ 岳父岳母　⑦ 妻子的兄妹　⑧ 其他(　　)

14. 您用韩国语和家人谈话时的理解程度是?

① 差不多都能理解　② 虽然有一部分听不懂，但大部分都能理解

③ 听懂一半，猜一半　④ 只听懂一点点，几乎都不懂

⑤ 完全听不懂,

15. 因听不懂孩子的话，难以沟通时，您平时求谁帮忙?

① 和孩子沟通没问题　② 配偶　③ 配偶父母

④ 邻居　⑤ 行政机关(多元文化支援中心 等) ⑥ 其他 (　　)

16. 您的孩子们平时在家里使用的语言是?

① 只有一个孩子　② 韩国语　③ 我的母国语

④ 韩国语和我的母国语都用　⑤ 其他(　　)

Ⅳ. 父母和子女教育部分

17. 一天平均和子女在一起几个小时?

	不到一个小时	一个小时 ~ 二个小时	二个小时 ~ 三个小时	三个小时 ~ 四个小时	四个小时 以上
爸爸	①	②	③	④	⑤
妈妈	①	②	③	④	⑤

18. 家属中发生冲突最多的人是谁和谁?

① 爸爸-妈妈　② 爸爸-子女　③ 妈妈-子女　④ 子女-子女
⑤ 公婆-儿媳　⑥ 岳父岳母-女婿　⑦ 公婆 -子女　⑧ 岳父岳母-子女
⑨ 丈夫的兄妹-本人 ⑩ 妻子的兄妹-丈夫 ⑪ 其他 (　　)

19. 如果您和子女之间发生冲突时, 是谁帮您解决问题?

① 没有任何冲突 ② 配偶　③ 配偶的父母
④ 邻居　⑤ 行政机关(多元文化支援中心 等) ⑥ 其他 (　)

20. 您对子女的未来, 教育方面有计划吗?

① 有 (☞ 答 20-1行　提问)　② 没有 (☞ 答 20-2行　提问)
③ 不知道(☞ 20-2行　提问)

20-1. 您对子女的未来教育方面, 最担心的是什么?

① 以成绩为主的入学专业补习班　② 艺, 体, 能专业补习
③ 韩国语补习班　④ 个人辅导
⑤ 英语等外国语补习班　⑥ 其他 (　　)

20-2. 您对子女的未来的教育, 没有计划或不知道的理由是什么?

① 我不知道教育制度　② 我不知道教育机关
③ 因经济上的问题　④ 我信赖学校教育
⑤ 我不知道教育的必要性　⑥ 会其他家庭成员看着办
⑦ 其他 (　　)

21. 您知道保育或教育支援制度吗?

① 知道(☞ 答 20-1行　提问) ② 不知道(☞ 答 20-1行　提问)

21-1. 您通过什么方式知道对支援制度的指南或情报? (请您只选一项)

① 社区中心　② 学校　③ 多元文化家族支援中心
④ 福利中心　⑤ 报纸,广播,网络 等
⑥ 通过熟人　⑥ 其他(　　)

22. 您对子女学您的母国语，有什么想法?

① 一定让他学(☞答 22-1行 提问)　② 能学就让他学(☞ 答 22-1行 提问)

④ 我觉得不必要(☞答 22-2行 提问)　⑤ 我不想让孩子学(☞答 22-2行 提问)

⑥ 我不知道(☞答 22-2行 提问)

22-1. 您给子女教母国语的理由是什么?

① 因为我觉得有必要子女学父母国家的语言

② 因为我和子女交流情绪上有必要

③ 因为我让我的孩子能说好两国的文化或语言

④ 为了和我的父母，兄弟姐妹，亲人间的沟通，

⑤ 因为我觉得入学和就业有利

⑥ 其他（　　）

22-2. 您反对给您的子女教母国语的理由?

① 因为其他家属的反对　② 怕妨碍在学校的学习

③ 怕妨碍韩国语的理解　④ 因为没时间教

⑤ 因为缺乏我的母国语相关的机关或资料　⑥ 怕被朋友欺负

⑦ 没有任何难处　⑧ 其他(　　)

23. 您现在有没有未入学的子女?

① 有 (☞答 23-1行 提问)　② 没有 (☞答 23-2行 提问)

23-1. 未入学的子女，您通过什么方式来照顾?(按年龄最小的子女回答)

① 托儿所　② 幼儿园　③ 补习班　④ 本人

⑤ 配偶的父母　⑥ 子女独自在家　⑦ 其他 (　　)

23-2. 入学的子女，您通过什么方式来照顾?(按年龄最小的子女回答)

① 补习班　② 子女独自在家 / 几个子女们一起

③ 课外补习班　④ 社区儿童中心

⑤ 公婆　⑥ 岳父岳母

⑦ 丈夫的兄弟姐妹　⑧ 妻子的兄弟姐妹　⑨ 其他(　)

24. 您的子女跟您谈论过在幼儿园或学校生活中遇到的困难吗?

① 有(答 24-1行 提问) ② 没有(答 25行 提问)

24-1. 是谁解决子女学校生活中遇到的困难?

① 配偶 ② 本人 ③ 配偶的父母 ④ 配偶的兄弟姐妹

⑤ 子女兄弟姐妹 ⑥ 子女自己 ⑦ 其他( )

25. 下列是关于检查您的子女的语言发达水平。请您在符合的问项上打钩

项目	很不好 ←→ 很好				
我觉得我的孩子的韩国语没有同龄孩子们好	①	②	③	④	⑤
我觉得我的孩子能阅读能理解韩国语书	①	②	③	④	⑤
我觉得我的孩子能用韩国语讨论	①	②	③	④	⑤
我觉得我的孩子能听懂能理解韩国语文章	①	②	③	④	⑤
我觉得我的孩子能和老师或和他同龄孩子们会话交流	①	②	③	④	⑤
我觉得我的孩子能用韩国语发表	①	②	③	④	⑤

26.您平均支出多少子女学习班的学费以私人教育费? _____ 万元

26-1. 请您全部写下现在正给孩子教的课外教育 / 私人教育

比如: 英语学习班, 课外学习班(美术), 国语辅导书 , 英语辅导书 等

_____

_____

27. 您认为课外教育费交多少最合适呢? _____ 万元

衷心的感谢您真诚的合作。

연 구 진

연 구 책 임　**정 영 태**　제주발전연구원 전문연구원

기본연구 2013-19

제주지역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실태와 개선방안

발행인 ‖ 공 영 민
발행일 ‖ 2013년 12월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
690-162 제주시 아연로 253(오라이동)
전화: (064) 726-0500 팩스: (064) 751-2168
홈페이지: www.jdi.re.kr
인쇄처 ‖ 일신옵셋인쇄사

ISBN : 978-89-6010-341-2 93330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